





### **COVER STORY**

### |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살짝 보여 주시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낮춰 모자른 다른 이를 섬기는 공동체, 섬기면서도 자신의 마음 속에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 모든 마음을 열어 놓아도 부끄럽 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며 더하고 채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곳, 이런 곳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나라" 일겁니다.

조각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3호〉 2016년 여름

만든 날짜 2016년 8월 15일 만든 사람들 기획 / 편집\_이진미 남인주 디자인\_김양현 펴낸 이\_양승언 펴낸 곳 다움교회





조각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2016년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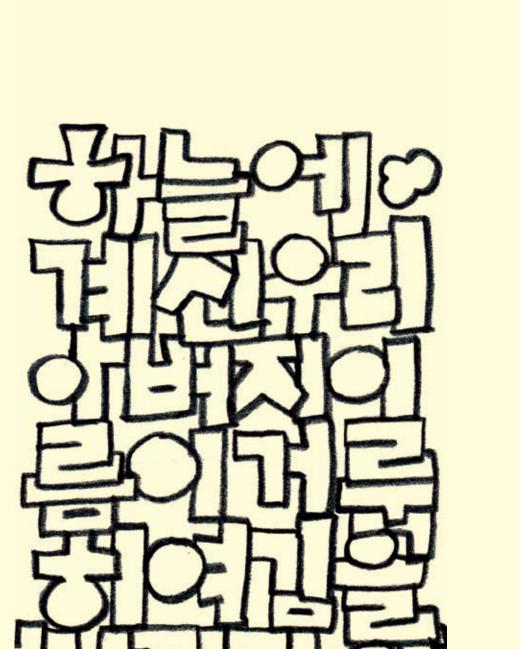
우리가 세워갈 공동체는 한두 시람의 한신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 에배하는 공동체

- 008 인생의 레몬차
- 010 다움교회 발자취 / 편집부
- 012 되돌아보니 보이는 행복
- 014 다움가족의 날 스케치 / 편집부
- 016 다움의 걸음에서 만나는 것들
- 018 다움가족이 되다 / 강수정
- 020 다시 시작된 꿈 / 김수희
- 022 다움과 함께 커가는 믿음 / 명승희
- 024 출아신교 / 임효순
- 026 예배자로 나감 / 이동기
- 028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며 / 박화선
- 030 순종 / 송철
- 032 소위 권사, 소위 성도 / 김진애
- 034 예수님을 따라간 고난주일 /류현미
- 036 사랑부?? 다움뷔!
- 038 특별한 동행 / 박경연
- 039 이들과 함께 / 정주은
- 040 거창한 꿈을 꿉니다
- 042 다움부가 한 살이 되었습니다 / 편집부
- 044 다움의 숫자들
- 046 다움교회 창립2주년 감사 가족의 날 / 편집부
- 050 감사 / 윤재임
- 052 선물 / 김화선
- 054 정말 너무 좋아요 / 송라헬
- 056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ㄷ 증	☐ 증거하는 <del>공동</del> 체	
060	다움교회의 자기 PR	110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를 부요하게	
062	나에게 다락방이란? / 편집부	112	다움 영어도서관이 두 번째 생일을 맞이 했습니다	
064	순원들에게 보내는 쪽지 / 편집부	114	다움 영어도서관 2주년 사역보고	
066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 신연숙	116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 이종란	
068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 박은영	118	You are welcome. / 최예원	
070	Tone Down	120	선한 사마리아 도서관 / 이경근	
072	첫 제자훈련을 시작하며 / 편집부	122	입술이 달싹달싹~ 원어민과 함께/ 편집부	
074	오직 인내와 순종으로 / 은이영	124	기분이 묘하게 좋은 봉사 / 편집부	
076	불량성도 성경연구반 나들이 / 장미현	126	나를 자라게 하는 곳 / 김소윤	
078	선하신 손길 / 이순자	128	참새 방앗간 / 어머니 감사편지1	
080	인생의 첫 자리 / 박선아	130	기다려지는 시간 / 어머니 감사편지2	
082	하나님과의 재회 / 안혜연	132	필리핀 아이리의 편지 / Iry D. Lising	
084	내가 줄서는 이유	134	앵그리스트 맨	
086	다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 편집부	136	요술사가 된 요리사 / 김미경	
088	맛있는 수련회를 마치고 / 이명희	137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 오교숙	
090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 편집부	138	엄마의 밥상 / 유은경	
092	교복 입고 교회가자 / 편집부	140	이웃사랑 사역이 시작됩니다	
093	성경 골든벨 / 편집부	142	달달한 토요교실 첫날 / 편집부	
094	청소년 주일학교를 떠나며 / 정두호	144	잊지말자 가랑비 / 유혜정	
096	청출어람 / 온석훈	146	엉켰던 실타래 / 송길은	
098	대학청년부 겨울수련회를 돌아보며 / 권영원	148	육군 선공 교회 섬김을 시작하며 / 유영림	
099	대학청년부와 함께한 1년 / 정기용	150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김재현	
100	교사 수련회 단상 / 정성철	152	즐거운 꿈 / 양선주	

103 특별한 재판 이야기104 나에게 예수님이란? / 편집부





2114H3H2





양승언 목사



### とないとうとうとう



1. 루화난의 〈인생의 레몬차〉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 쌍의 연인이 커피숍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주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화가나서 가버렸고, 여자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진 여자는 앞에 놓인 레몬차를 휘저으며, 레몬조각을 스푼으로 찧었습니다. 그러자 레몬이 뭉개지면서 껍질에 있는 쓴 맛이 차에 섞였습니다.

2. 여자는 종업원을 불러, 껍질을 벗긴 레몬을 넣은 차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 업원은 시원한 레몬차 한 잔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레몬차 속의 레몬은 여전히 껍질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가 나서 다시 종업원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몬 껍질을 충분히 물속에 담가두면 껍질의 쓴 맛이 용해되어 시원하고 감미로운 맛을 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레몬을 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혼탁해질 뿐 차 맛을 망치게 됩니다."

3. 종업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은 여자는 종업원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열두 시간이 지나면 레몬이 자신의 향을 전부 방출하므로 가장 좋은 맛의 레몬차를 마실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종업원의 말을 듣고 여자는 레몬차를 보면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레몬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두 시간 후, 그녀는 이제껏 맛보지 못한 가장 맛있는 레몬차를 맛보았습니다. 레몬이 차에 완전히 용해되어야만 이와 같은 완벽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 그런 다음 여자는 남자 친구를 만나, 앞으로 어떤 큰 문제를 만나는 레몬차를 기억하자 고 제안했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 니다. "가장 좋은 맛을 맛보기 위해선 열두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야."

5. 단순히 차를 우려내는 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분 만에 레몬 맛을 전부 짜내고자 한다면 차맛이 더 쓰고 혼탁해지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이시간들이 없었으면 결코 맛보지 못할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목을 시원케 하는 레몬차의 깊은 맛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줄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한 얼굴의

2013 1013

2014 0218

2014 0420



2013 1201

2014 0302











3 1201 첫 예배(중동고 소강당)



\_\_ 2013 1201 필리핀 학생 후원시작



L 2013 1215 주일학교 시작





L\_ 2014 0216 대학청년부 시작



L 2014 0218 여자다락방 시작



\_ 2014 0218 성경연구반 개강



\_\_ **2014 0223** 탈북청소년학교 식사봉사 시작(두리하나학교,여명학교)



\_ 2014 0302 교회명을 다움교회로 정함



L 2014 0406 상반기 가족모임



L 2014 0608 주일예배를 대강당에서 드리기 시작



L 2014 0629 다움 첫 세례식



L 2014 0706 다움 첫 성찬식



L 2014 0714 다움 영어도서관 개관





\_\_ **2014 0525** 남자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시작



L 2014 1225 다움소식지 조각보2호 출간

2016 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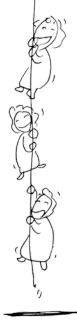
2015 0405 2014 0714 2016 0228 2016 0717 L 2015 0907 자녀를 위한 어머니기도회 시작 2015 0118 다움하우스2호 오픈 \_\_ 2016 0329 2016년 1기 성경연구반 **\_\_ 2015 1127** 개척2주년 감사예배 및 다움가족의 날 L 2016 0228 교사수련회 \_ 2016 0402 다움부 토요교실 \_\_ **2015 1205** 토요새벽기도회 시작 \_ 2016 0311 2016년 상반기 연합다락방 \_\_\_ **2016 0420** 사역훈련 시작 \_ **2015 0315** 다움부예배 시작 \_\_ **2015 1220** 남,여직장인 연합다락방 **\_\_ 2016 0118,30-31** 주일학교 ∟ **2015 0717-18, 24-26**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L 2016 0220-21 대학청년부 겨울수련회 L 2016 0313 다움부 1주년 감사예배 L 2016 0417 창립 2주년 다움가족의 날 L 2016 0717 다움영어도서관 개관 2주년 감사예배 L 2016 0223 순장반 겨울수련회 L 2016 0321-26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L\_ 2015 0728 다움영어도서관 개관 1주년 감사예배

2015 0415

2015 0315

patchwork of GOD

양승언 목사



# 阿多叶里山上的生物的

1. 고은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로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려올 때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을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올 때야 비로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만이 아니라, 인생 길에서도 자주발견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처음 개척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적잖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만 기쁘게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르고 가는 길이라 헤매기도 하고, 오히려 이것저것 갖추어져 가면서 넘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더욱 앞만 보고 걷느라, 그 길에 피었던 행복을 못보고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3.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우리가 누렸던 행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개척교회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개척교회가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역시 풍성히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예배처소를 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움하우스를 구할 때, 대강당으로 옮길 과정, 영어도서관과 다움부 시작 등,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4.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다른 시기에,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힘은 최대한 무력하게,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극대화 하신 후, 일하심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공동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 선하신 손길에 우리 공동체의 암길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 지난 길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행복은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분들을 다움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뒷정리를 위해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었던 권사님들, 교회의 필요들을 말없이 남몰래 채워주셨던 집사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풍요롭게 교육하셨던 선생님들 등.

6. 물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아픔은 사람으로 인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에 비하면 그것 역시 작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함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움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은 사람이기, 우리가 함께 했던 이들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7.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렸던 행복은 "향기"일 것입니다. 다움의 개척초기부터 "선교적 공동체"가 되고자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초기부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컴패션을 통한 필리핀 학생 후원, 탈북청소년 학교 봉사, 장학사업, 영어도서관, 이웃사랑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특별한 사역을 전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힘에 부치도록 열심을 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다움의 존재 이유이고 다움을 지키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며, 함께 뛰는 "얼굴"들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길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 1月19月19



개척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 혜에 감사하며 다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풍성한 식탁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남는 것은 아닐까?' 혹 '모자르지는 않을까?' '맛은 어떨까?'...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배식하셨을 권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밥이 모자라 이웃 식당에서 목사님이 급히 사온 따끈따끈한 공깃밥 스무 그릇도 다움 두 돌잔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열정적인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의 지으신 목적에 어울림조각'/ '그리스도를 닮은조각'/ '세상과 살아감이 다름조각'/ '세상이 모르는 참된 기쁨조각'이 되어 화기애애하고도 치열하게!! 교우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하신 분들과 2주년 가족의 날을 주관하여 섬겨 주신 권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두돌배기 다움에게... 〉



-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성 도와 교회가 되길!
-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 그 기쁨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다움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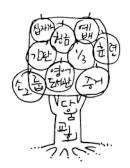


-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소서...
- ●이제 두 돌, 걸음마 배워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된 아이처럼 다움교회도 선 듯 할 때 넘어질까 하는 마음 잊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 며 새로운 비젼과 소망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 니다.^^
-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착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젖 떼고 걸음마 배우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갈 든든한 힘도 생겼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두 돌, 기어 다니다 겨우 설 수 있게 된 아가교회에서 혼자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된 어린이교회가 되었네요. 아직 여전히 어린 다움이기에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는 두 다리로 주님나 라에 쓰임 받는 든든한 일꾼으로 잘 성장해나가길 기도 합니다.
- ●초심을 잃지 않고 소망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다움교회!
-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다움교회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기쁨 되는 교회되길 기도합니다.
- ●교회가 자라가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기 를 원합니다.



양승언 목사

# 好好意



1. 모든 행동의 뒤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가치는 가치만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열매로 나타날 때 가치는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가치가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귀한 가치일수록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럼 지난 시간 다움이 추구했던 가치는 어떤 열매로 나타났을까요? 물론 우리가 품었던 모든 가치가 열매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하나의 가치가 온전한 열매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다움의 지나온 발걸음에서 만나게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3. 우선 다움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간판과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교회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면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모임 공간 없이 주일에 학교 강당만을 빌려 사용했기에 간판을 설치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중모임공간인 다움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교회 간판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4. 간판이 없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도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국 사람임을 믿기에, 무형의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건물이 아닌 사람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 판이나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5. 둘째로 다움은 헌금시간이 없으며,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헌금 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재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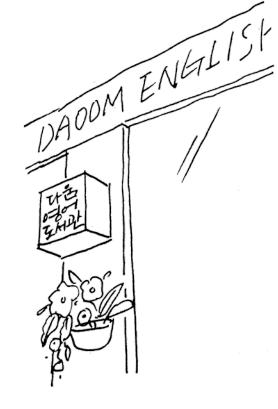
6. 헌금 시간 뿐만 아니라, 다움의 예배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주시는 값진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산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고, 그래서 인위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움은 예배 중 하나님에게 집

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7. 셋째로 다움은 주중예배가 없습니다.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학교 강당만을 빌려 예배를 드렸기에, 주중공간이 없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중모임공간인 다움하우스를 마련했을 때, 주중예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공적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왔고, 이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약해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적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중심의,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되고자 주중예배를 갖지 않았습니다.
- 8. 대신에 주중모임은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는 대예배와 소그룹이 균형 잡힌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 드리며, 동시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기를 힘썼습니다(행 246~47).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 혼자, 그리고 소그룹으로 배우며 익히고자 했습니다(행 17:11).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갖출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히 자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9. 넷째로 다움은 선교지향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전망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 중 하나는 자기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판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초기부터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10. 개척예배와 더불어 컴패션을 통해 필리핀 학생을 후원하기로 했고, 곧이어 탈북청소년학교 식사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어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움교회가 세운 첫 간판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간판이라는 사실에 남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어도서관만의 간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적립해 온 이웃사랑기금으로 다양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11. 교회는 세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 훈련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증거하는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재정도 이 세 가지 목적에 균형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재정의 1/3은 세상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달에 35만원밖에 지출하지 못했지만, 지난 기간 평균적으로 1/3에 가까운 금액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 지 모르겠지만,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정

### 对影响如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에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년시절부터 결혼해서 지금까지 일원동에서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보니 성격적으로 호기심이 많아 그럴 수 있겠지만. 동네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앞을 지나다니던 동네 사람들도 공사에 대해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흘러 영어도서관 간판이 걸렸습니다. 동네 언니가 먼저 영어도서관에 다녀와서 알려줬습니다. 회원등록을 하면 무료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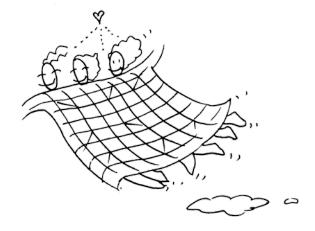
우리 동네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처음 다움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화려하거나 넓진 않지만. 도서관에 있을만한 것들을 축소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영어책들과 시청각자료 방송 장비까지. 누가 이걸 무료로 지역아이들에게 해놓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 번 가면서 도 서관에 계신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다움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움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인터넷으로 어떤 교회인지 찾아보 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런 방황하고 있던 찰나에 영어도서관을 만났던 것입니다. 틈틈히 인터넷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다시주님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움교회의 선한 생각과 영향력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저를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15년을 시작하고 싶어서 저희 가족이 새해 첫날부터 다움교회에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영어도서관은 동네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고생 언니오빠들이 영어로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링은 참신하였고, 매주 진행되는 영어프로그램도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적인 봉사로 학습적 영어가 아닌 즐거움을 통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이용하지만 다움교회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주변인에는 알려주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 비춰지고 일부 교회의 모습이 교회전체로 보여 지면서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더 불신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일부러 내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긴다면 민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받이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다움교회 교인들이 매주 교회를 이용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수고를 통한 세상적인 기부가 주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고 있기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움교회를 통해 회복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버라이어티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 만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힘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항상 교회에서나 도서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다움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UNYSTE

지난 어느 여름날 기도하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다녔던 모 교회를 떠난 뒤로 유 랑자처럼 떠돌면서 나는 한없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절규하듯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우연 같은 기적으로 나는 '다 움교회'를 알게 되었고, 중동고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상수훈 중 팔복에 대한 목사님의 첫 설교는 심령이 가난했던 내게 잔잔하지만 또 강하게 그렇게 내 마음을 두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두 아이들과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게 되었고 다락방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다락방 성경공부 시간은 그동안의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무엇보다.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고 편안하고 따스함이 좋았습니다. 또주일마다 성경을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해석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찔림과 감동으로 마음이 백차올랐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들도 청소년 주일학교에 잘 적응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모여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예배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한명 한명 이름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2번의 수련회를 거치면서 이제 아이들은 완연한 '다움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 둘째아들 유안이가 돌발성 난청으로 갑자기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목사님과 순장님,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때 공동체의 은혜와 깊은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의사선생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유안이는 세 달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되어 온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저는 다움교회에 온지 채 일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많이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야 할 이 사랑의 빚을 이제 저도 조금씩 갚으며 살아가며 그렇게 천천히 다움교회의 조각보 한 자락이 되고 싶습니다.



명승희



## 对岩外部加升地路

'할렐루야 찬양해요~ 우리모두 함께 찬양해요~귀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해요~' 작년 크리스마스날, 저희 부부는 남다른 감회에 젖어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일 년 전, 2014년 12월 25일 성탄예배에서 엄마 품에 겨우 안겨 유아세례를 받았던 딸, 민채가 어느 덧 커서 주일학교 성탄 특송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2014년 가을, 저는 당시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영적 보금자리를 정하지 못하던 중 다움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에만 집중 할 수 있는 것이 좋아 한 주 두 주 주일예배만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가오는 성탄 예배에 유아세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남편이 민채를 낳고 받고 싶은 선물을 물었을 때. 어떤 명품 백도 필요 없고 민채가 유아세례

받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라고 남편의 동의를 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혹시나 남편의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이나던 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등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정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께서 흔쾌히 만채가 유아세례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보면 민채의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저희 가족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낯가림이 이주 심하던 민채는 저희의 걱정을 무색하게 하듯 낯선 곳에서 무사히(?) 의젓하게 유아세례를 받았고 집에 와서는 "예수님 만나고 왔지요" 라고 말해 우리 가족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한 두 주 만에 엄마 없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다음해에는 창립기념일 특송 무대에도 서고 수련회에도 참가하며 사랑 많으신 선생님들 속에서 허루하루 신앙의 싹을 키워갔습니다. 아직은 주일날간식 먹는 것이 더 좋은 아이지만 간식 시간에 기도할 때까지 좋아하는 간식을 먹지 않고 꾹 참곤 하는 신앙의 습관들이 늘어가며 동요보다 찬송부르기를 더 좋아하는, QT책이 그림책인 줄 생각하고 수염 많은 예수님을 그린다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민채가 주일학교에 나가게 되면서 남편과 저의 신앙에도 지극을 주었습니다. 결혼 당시 민음이 없던 남편은 결혼 후 함께 주일예배는 같이 참석했지만 교회에 속하는 것은 꺼려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민채의 세례 이후 저와 함께 다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어색해 하던 기도시간 이제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어 함께 찬양합니다. 저 또한 어릴적 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신앙으로 롤러코스터를 타 듯 이슬이슬한 신앙생활을 연명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지내던 중 남편과 민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제게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온도로는 더 이상 안된다며 일깨워 주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참석하지 않던 다락방으로 인도하셔서 영적 성장의 첫 발걸음을 떼게 해 주셨습니다.

다움교회가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채의 신앙의 나이도 3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다움교회에서 그 뜻을 어떻게 이뤄나가실지, 그 안에서 민채의 믿음의 크기는 또 어떻게 키워나가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저희 가족을 다움교 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효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세례를 받기 위한 간증문을 작성하려는데, 한편으로 조심스러우면서 감동적인 내용이 없어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날이 내가 주님 품안에서 태어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한흠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집〉 6월 14일 장을 펼쳤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지도자들로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믿음과 종교관은 매우 모자라고 관대했습니다. 어릴 적 귀가 얇은 어머니의 약한 믿음 생활은 한곳에 뿌리내리지 못한 부평초였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순례하며 이끌려 다녔습니다. 믿음에 대한 모양과 색깔이 참으로 많구나 라고 제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 믿음에 대한 나름의 주관이 확고해졌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만이 종교를 갈급하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는 매우 훌륭하고 자기에게 맞는 믿음을 택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종교를 권유하며 물으면 '이사교'(나를 믿는다)라고 건방지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부터 조금씩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완성하려는 그림들이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천사가 내 앞에 화려하게 등장할 날 만을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던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3이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혼자서 1년을 잘 보낼 자신이 없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다녔던 기억을 살려 각 종교를 한 달씩 다녀

보고 나에게 맞는 곳을 정하려 했습니다. 먼저 인근의 유명 사찰을 몇 번 갔습니다. 앞 사람의 엎드린 발바닥만 쳐다보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생각만 더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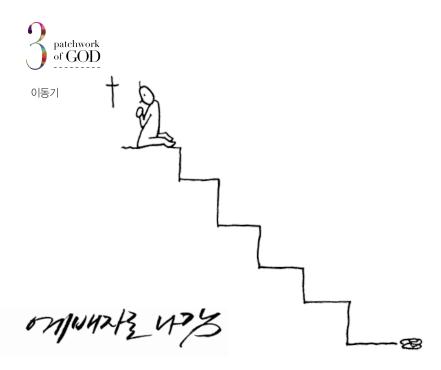
그러던 중 지인께서 '중동고 소회의실에서 몇 분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으니' 가보라 했습니다. 정말 소회의실에서 몇 명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눈에 띄어 발목 잡힐까봐 떨면서 중동고를 찾았습니다. 기우였습니다. 소회의실이 아닌 소강당이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지만 씩씩하게 2주를 다녔습니다. 3주째부터는 그냥 예배만 보고 올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께 처음 왔으니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대로 방치하면 언제 발길 돌릴지 모른다는 불쌍한 시선을 팍팍 보냈습니다.

옆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4주째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여행 대신 성경책을 들고 주신 말씀을 꼭꼭 새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생명수로 삼아 달라진 마음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살이였습니다. 다락방도 하게 됐습니다. 수험생 다락방으로 알려졌고 멀리서 오시는 순장님께 미안하여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 연구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지나온 과정들이 신기할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었음을 오늘에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에 비해 나의 믿음은 걷기는 커녕 일어서지도 못한 어린 아기임을 실감할 뿐입니다. 아직도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고, 등장하는 낯선 이름들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기입니다. 세례 받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시는 말씀 은혜삼아 체하지 않고 무럭무럭 건강히 자라겠습니다. '왜 또 이래요' 하고 따지고 고민하지도 않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릴 줄 이는 바른 태도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한발 한발 정성들여 걷겠습니다. 정확한 의미 파악은 못했지만 감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내보렵니다. 믿는 사람은 뭔가 다름을, 변화된 나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의 믿음의 거울이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환한 미소로 잘 자란 저를 기특하게 여길 날을 갈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온 맘으로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경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오전 6시 휴대전화 알람에 좀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뒤로하고, 침실에서 일어나 앉은 채로 "아버지 하나님, 0000년 00월 00일이 밝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공동체를 위해, 친지와 가족을 위해,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조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아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 탄원하며, 소리 높여 흐느끼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는 회사와 업무로 부딪히는 현장이야 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제대로 필요로 하는 영적인 예배의 전쟁터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급한 성격 탓도 있지만, 일상적 업무로, 예기치 않는 일로, 사적인 경우로, 예상치 못한 사건 등으로 다른 사람

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와 먼저 회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를 쓴다. 사괴나 회해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여 견딜수가 없어서 먼저 정중히 사괴나 회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

회사를 운영할 때, 종종 엄습하는 불안, 염려 속에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제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예배로 드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불신자들의 눈에 저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스스로 언행에 조심을 요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투쟁하며, 점심, 저녁 시간 조용히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퇴근하여 잠들기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본다.

주일 예배를 위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맞춘다. 주일에 있을 약속, 여행, 일정은 배제하고 예배를 우선으로 모든 일정을 잡는다. 긴급한 업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간혹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을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아닌가?

주일 예배 당일 아침 몸을 정결히 하고 내의도 전 날 밤 준비한 깨끗한 것으로, 좋은 정장으로 준비하여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출발한다. 예배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자 애를 쓰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간구한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날부터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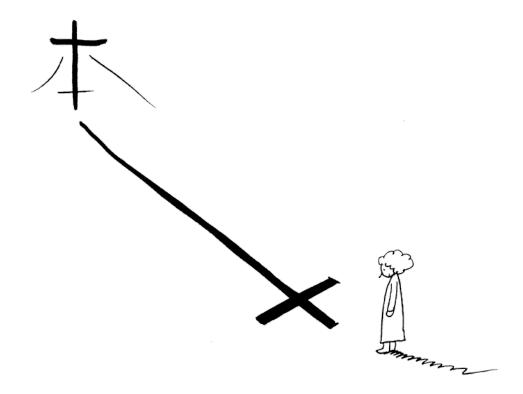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공적인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의 선포와 고백, 지체들과의 교제, 섬김, 봉사, 나눔, 헌신,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동참한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사 제사를 통해, 성막,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이 된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서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박화선



# 的经常至此的

민음이란 무엇일까요 여전히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화두입니다. 오늘 미용실에 갔다가 스텝중 한 명이 안 보여서 안부를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루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7살 이들, 아직 결혼 전 그 나이 아들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일뿐인지 아들을 키워본 저희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평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뜻밖의 소리를 듣고 그 집안과 이곳 미용실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의 입에서 "이래서 종교가 필요한가봐요" 소리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제가 크리스챤임을 아는 원장인지라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세상이 개독교라 비판해도 기독교는 여전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위로에 대하여 오면서 흰 봉투 속에 작은 정성과 기도하고 위로를 보낸다는 짧은 메시지를 적어맡기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인간의 나이로 신앙의 나이를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릴 사랑하시고 부활의 신비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그 진실을 이웃에게 알려주길 원하는데 .. 고학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어려운걸 해야한다고 낑낑거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초신자 시절, 팔꿈치 굳은살 같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살지 말자 다짐했고, 봄이면 연한 순이 올라와 바람에 나풀거릴 때는 세상 나뭇잎들도 주님의 사랑을 화답하는 모습으로 보았으며, 구름만 보아도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실까 가슴 두근거리던 시절들...

마음의 각질이 쌓이지 않게 주님 앞에 매일 갈고 닦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리라 다짐했는데 지금은 거창한 구호만을 외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 때 피하지 않게 하심에 가슴 백찬 뿌듯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30여년전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주를 증거하기를 바라셨고 생활 속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찾으며 잔잔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송철



1/2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은 많이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움 공동체가 개척하면서부터 주차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눈, 비, 바람의 4계절을 다 지나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피곤해서 쉴까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주일 예배 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 만나는 것이 저이고 그분들을 웃는 얼굴로 뵐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 기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축구를 하시는 분들과 언쟁이 일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축구 시간을 맞춰야하는 그분들은 주차라인에 바르게 차를 대고 갈

여유가없는 것 같습니다. 협소한 주차 공간에 두 칸씩 차지하며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께 전화를 걸어 바로 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쁘신지 화를 내거나, 자기 차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때마다 운동장을 찾아가서 관계자 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못해 와서 빼는 차주를 볼 때마다 속으로 부글거리며 꿇어오르는게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라며 깊은 한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구별된 신앙인이고 싶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지만 성질 급한 저에겐 참아내는게 여간 큰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삶에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깊은 한숨 몰아쉬고 다시금 웃으며 그분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주차봉사는 저에게 말씀을 순종하는지 바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현장입니다. 그렇게 연단 받은 지금은 잘 순종한 선물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인내 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상급으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차섬김은 봉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주일마다 영희초, 중동고 후문 등 숨은 곳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잦은 출장으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오시는 집사님, 비가 올 때면 우산 하나 받쳐 들고 바지춤이 다 젖도록 서 계시던 집사님, 욕을 먹어도 묵묵히 참아내며 듣고 계시던 집사님, 주일에 일이 잡히지 않도록 기도부탁을 하며 자리를 지키려 애쓰시는 집사님, 자리가 비어 긴급히 주차를 부탁드리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시던 집사님, 이런 귀한 분들이 빛나지 않는 그 자리들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덕에 덤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섬김"이라는 주제로 무언가를 표현하기엔 머쓱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섬김 덕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와 언쟁을 하거나 다툰 적이 없는 분이 험한 소리를 들으며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집에서는 빗자루 한번 들어 보지 않던 분이 허리를 두드리며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야 하는 모습 등은 그 섬김의 경중을 떠나 너무 멋지고 거룩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틈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모습이 빛 바랜듯한 한 조각의 모습일지라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조각보가 되어 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회의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고인의 위패에 이름과 함께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이 쓰여 있는데, 가끔은 그걸 보고 고인의 신앙 연조나 교회에서의 역할 등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권사'나 '장로' 쯤 되면 뭔가 신앙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셨으리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가족들을 부를 때의 호칭 또한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냥 자매나 형제로 불리다가 신앙생활의 연조에 따라 '집사'로 불리고 머리에 서리가 희 끗희끗 내려앉을 때쯤이면 여성들은 대충 '권사'로 어림잡아 부르곤 합니다. 내 나이가 50 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외모의 액면 가치에 비례해서 나를 '권사'로 부를 때도 있는데, 그 럴 때마다 '권사'가 아닌 나는 '저 권사 아니에요, 집사에요'라고 호칭을 고쳐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 내가 나이가 들어 보이기는 하나 보다"하는 씁쓸함과 아직도 집사인 내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작 년 창립 기념 주일에 나도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되었는데 막상 '권사'로 불리고 보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어색함과 함께 소위 '권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색깔이나 일반 명사, 동사 등은 그림이나 행동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 반면에 그 의미를 전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우리말이 꽤 많은

데, 대체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부사, 추상 명사들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리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위(所謂)'라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만들어진 이 말은 순 우리말로 '이른바'가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설명하기어렵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주로 긍정하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릴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 또는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만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가치가 부여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역자를 도와 교우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교직(教職).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권사'는 내가 과연 그렇게 불릴만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자격과 가치의 무게감을 얹어 주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소위 권사는 — 해야 한다"고 규정지어진 사회적기준에 맞춰야 하거나 "소위 권사가 — 한단 말인가?"하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경험만이 권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 테고 권사답게 살 자신도 없으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렇게 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역자를 잘돕지도 못하고 교우를 권면하기에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변변찮은 내가 소위 '권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저 내게 주어진 일, 주님이 맡기신 듯한일(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일을 네게 맡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렇게 어림짐작할 수밖에..)을 하나하나 해나기로 마음먹었는데, 천성이 게으른 내게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미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상황이 되어서야 허둥대며 일하고, 가끔은 왜이런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잊은 채 습관적으로 일하기도 다반사였습니다.

한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소위'권사'가 잘 감당되지 못하자 나는 슬슬 잔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권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장례식장에서 조금은 쉬워 보였던 '성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이거야말로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 되었습니다. '성도(聖徒)'란 기독교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성스러운 무리들'이란 뜻풀이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좀 더 확대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성도'라 불리는 이 호칭이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하게 쓰이니까 만만하게 보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불리는 호칭에 걸맞은 삶에 자신이 없는 나는 소위'권사'보다 더 큰 소위'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큰 부담, 그러나 행복하고 감사한 내 십자가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류현미

## 1797年 2442 1841 1243年 1445718年1



고난주일, 차분하고 고요한 새벽기도회 첫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느끼며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주일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마태복음 26장36절 부터~27장 44절 말씀과함께 따라가 봅니다.

월〉 겠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 하라'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지옥의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직히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착한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정직히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화〉세 번의 기도 후 모든 고뇌를 끝내신 예수님은, 일어나라! 가자! 행하라! 말씀하시며 성경대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뜻을 행 하신 것입니다. 기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순종할 힘을 주심을 믿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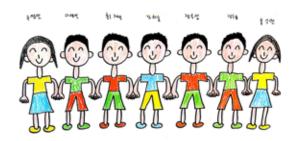
수〉 공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는 말씀이 유죄증거로 나옵니다. 이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말 아야겠습니다.

목〉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가며 대제시장 집 앞 뜰까지 따라가서 그 결말을 보기 위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예수님을 부인한 후 통곡합니다. 저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금〉 골고다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베드로 시몬이 떠난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몬을 통해 십자가의 본질이' 대신 지는 것'임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대신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지신십자가를 보며 저도 당장은 손해를 보는 자리, 억울해 보이는 자리, 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자가 되길 기도 합니다.

토〉 예수님의 고뇌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세 번의 기도, 기도 하신 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단한 발걸음을 따라 고난주일 새벽 예배를 마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아침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 하지 않도록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 안에 계신 부활 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므로 나를 향하신 그 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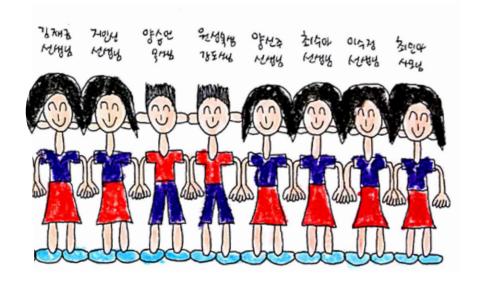


०१२०१ है २२०१ प्रमुख भन्नुष् चित्रुव्युष्ट स्टिक्ष ०१.४२ व्यापा स्थाप स्याप स्थाप स्याप स्थाप स्याप स्थाप स

이번에 새롭게 장애인 예배를 신설하면서 부서명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흔히 "사랑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사랑부"라는 명칭을 사용할까도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다움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움"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에, 특정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를 늘 중심에 두고 배려하고 섬긴다는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 내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지만, 다움부 사역은 많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며 전교회적인 관심과 기도 없이는 열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특히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결국 이 사역을 통해 얻을 열매는 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움교회가 가진 한 사람 철학을 잘 대변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움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된 다움부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그 이름에 담긴 가치처럼, 우리가 늘 연약한 자들을 중심에 둘 줄 알고, 온 교회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 섬김을 부탁 드립니다.







# 三性之对外,

오늘 다움부 첫 예배가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예배를 거부해온 딸, 수 연이가 교회 나올거라곤 전혀 예상 조차 못했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 서는 수연이의 발걸음을 다움2호로 옮겨주고 계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움부 예배를 위해 도착하시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11시 예배를 암두

목사님께서 첫예배 기도를 위해 오셨습니다. 대강당에서 다움2호까지 오고 가는 동안 종 종걸음으로 뛰셨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목사님과 둘러서서 예배시작 전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울먹이는 기도로 선생님들이나 저희도 한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계셔 주심만으로 든든한 버림목이신 집사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가득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생각하니 감사에 먹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에 몇 분의 선생님과 참석자들은 감격과 은혜의 울먹임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간식과 김밥 케익을 맛있게 나누었는데, 음식 맛보다 사랑을 듬뿍 섭취한 첫 예배의 귀한 간식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은혜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주은

# · 月至2十十年m でかりませる

작년 봄부터 다움교회 다락방과 성경연구반에는 출석하면서도 주일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진작 나오고 싶었지만 그동안 장애이를 위한 예배부서가 없기에 주일은 다른 교회 예배에 나아가고 있었는데 올해,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된 교사들이 섬겨주시는 다움부가 생겨서 저희 아들은 다움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말씀에 근간을 둔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어 한주 한주 은혜의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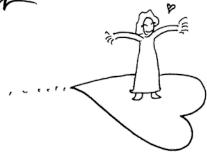
지금까지 저는 연약한 아들을 통해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고 또 앞으로도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 하셨 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 하였나이까" 라고 한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유리함을 기억하시며 내 흘린 눈물에 기쁨의 화관을 반드시 씌워 주시리라 믿기에 무지개문 지날 그때까지 저에게 맡기신 아들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뒷바라지하면서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가족이 은혜로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다움의 조각, 성도 한분 한분께 주님의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 합니다.



양승언 목사

对结果是表现



1. 최근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 그래서 이 분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도 남들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댁 근처에는 중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쉼터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곳에 항상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쉼터로 가서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읽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 학교 쉼터에 가서 학생들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그 결과 이 할머니 덕분에 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중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 예수님을 믿는다고 글을 못 읽던 사람이 갑자기 글을 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거나 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4. 2016년 3월 14일은 다움부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아이를 둔 어느 부모님의 요청으로 다움부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를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에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가장 연약한 지체의 요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먼저 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7명이 아이들이 다움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우리 다움부가 삼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한 슬로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들을 향한 우리의 꿈은 큽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사 6022)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움부에서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움부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6.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픈 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절을 베풀고픈 꿈.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지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보다 거창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편집부

### Of Firty they Tolksun



3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던 지난 주일엔 다움부의 1주년을 기념하는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기 위해 한껏 차려입고 뽐을 낸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멋진 찬양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부른던 친구들의 찬양에 가슴이 벅치올랐습니다.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곤, 우린 여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2호를 향한 달음질을 했고, 문을 열고 들어 서자 마자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풍선 장식들과 곳곳에 꾸며진 우리 친구들의 작품들은 마치 갤러리에라도 온 것처럼 너무나 황홀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움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떠올리며 멋지게 만들어주신 권사님의 꽃 장식은, 그아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는 축복된 날과도 같았습니다. 하객으로 초대되어 오신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 사모님, 부모님들 모두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듬직하고 커다란 나무 그늘과도 같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그리곤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움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말입니다.



피카소보다 더 영감 있는 멋진 화가가 나오고, 송명희 시인 같은 멋진 선율을 만드는 곡을 쓰는 친구가 나오고, 곳곳을 다니며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천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행복한 미소를 가진 미소년의 집중력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옮겨져 멋진 실체가 되어 나타나기를... 전도의 열정에 불타는 예쁜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입술에 힘을 주시사 누구든 그 친구의 전도를 받으면 반드시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호기심 쟁이 친구에게 자신만의 것을 꼭 발견하여 주님께 꼭 쓰임 받도록... 행복천사 신입생 친구에겐 진로가 열려지고 그 아이의 주변은 언제나 빛과 같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렇게 우린 다움부를 향한 꿈을 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곱고 아름다운 클라리넷의 선율이 울리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공간에도 홀연히 임한 듯 했습니다. 그날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표현의 능력을 주시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 은총의 표징이 보이고 열매를 맺는 커다란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화답이라도 하듯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분들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우린 또 다른 커다란 꿈을 꾸며 1주년 을 마음껏 축복하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양승언 목사

# 7月分气

사음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에 품었던 단어는 "모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해답은 "함께"였습니다. 개척장소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름과 사명, 비전을 정하는 일까지 전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 모두라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때무입니다.



그런데 "모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0"이 아닐까합니다. 우리교회가 상징처럼 사용하는 조각보는 다양한 모양의 천과 다양한 색깔의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자신의 색을 맘껏 드러낸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을 내려놓을 줄 알 때, 자신의 색을 "TONE DOWN"할 줄 알 때, "0"으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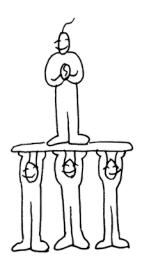


까워질 때, 비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처럼 자신을 "TONE DOWN" 함으로, 모두의 색깔이 함께 아름답게 빛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품었던 또다른 단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는 "1"일 것입니다. 한 사람 철학이란 단순히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를 품을 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움부"를 시작한 것도 이런 소

망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자, 작은 자를 주목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존귀함과 강함 때문이며,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주목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1/3 교회를 개척하면서 품었던 단어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소명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은 이유도 이 때문이며, 따라서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선교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움교회는 개척초기부터 세상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개척예배 때부터 컴패션을 통해 필리핀 대학생을 후 원했고, 탈북청소년학교 봉사와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

개해 왔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움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모이온 이웃사랑기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정의 1/3은 세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나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개척교회라 재정 규모도 크지 않고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1/3"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의 비전이 담긴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꿈처럼, 다움교회가 "모두와 함께" "한 사람 철학" 위에 "선교적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2016 04 17

#### 다움교회 창립 2주년 감사 가족의 날 스케치

다움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하며 온가족이 모여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움과 함께 지난 2년, 폭풍성장을 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티없이 맑은 찬양과 율동, 청소년부 언니오빠들의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부른 찬양 그리고 지난 2년 다움과 함께 울고 웃어온 순장님들의 찬송으로 다움과 동행하신 주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예배 후 맛깔스럽게 준비된 도시락으로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체육관에서 드림위드 앙상블의 축하공연으로 흥겨움이 더해졌습니다. 생일축하 케익 촛불을 불며 서로 격려하고 축 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비밀스럽게 포장된 기증상품들을 앞에 놓고 몸보다 마음이 더 바쁘게 열정적인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며 함께의 기쁨을 더 진하게 누렸습니다.^^



멋진 연주로 축하 해주신 드림위드앙상블팀과 2주년감사 가족모임을 위하여 수고하신 권사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다움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여 주신분들과 오늘까지 함께 걸어온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된 날을 허락하신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2016 04 17

# Congratulations

다움교회 2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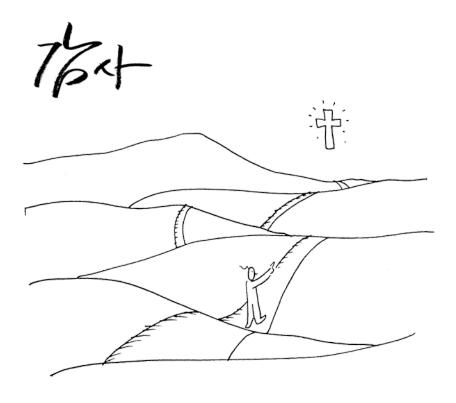








윤재임



개척예배를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창립2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처음 기도모임을 하던 장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예배 장소를 찾는 중에 중동고등학교를 빌리게 되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대강당으로 예배 장소를 옮길 때 먼지로 뒤덮인 강당을 청소할 때 기쁨에 힘든 줄모르고 모두가 감사함으로 열심히 쓸고 닦았습니다.

다음하우스 1호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중 모임을 할 수 있는 다움의 첫 공간이라 꾸밀 때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개관과 함께 사무실을 옮길때 이사비용 절감한다고 보따리를 싸서 짐을 옮기신 목사님 사모님 모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모든 것이 처음 일들이라 서투르고 실수도 하면서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할 수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움교회가 세워지고 다움의 발자취가 만들어 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지랄 것이고, 다움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고 나가다보면 굳건하게 세워진 다움교회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동안 다움교회가 크고 작은 비바람에도 건강하게 지랄 수 있었던 것은 다움가족 모두의 수고 가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랴 수고한 선생님들과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신 찬양팀. 예배 전후에 준비와 안내로 섬기고 간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손길들 위에 감사드립니다. 다움부와 가족 모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맑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케하는 울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할 곳도 없는 때약볕 아래서, 귀가 떨어져 나갈듯한 추위를 마주하며 섬겨주신 주차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송천홀에 준비되어 있는 김밥을 매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아마 다락방 가족들의 정성어린 섬김 때문일 것입니다. 향기로운 커피 한잔을 놓고 편안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늘 미리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정리하고 청소하며 다음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어도서관 봉사자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기쁘게 섬기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모든 것에 더하여 더욱 감사 한 것은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 불편한 것이 많음에도 다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들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서투르고 더딘 걸음과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며 베풀어주신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움교회 2주년을 맞이하며 다움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건강히 자라가며 십자가의 복음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전파되어 가는 통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희선





다움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안내에 따라 남편과 나는 캐주얼한 차림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주일예배를 드렸다. 대강당을 청소한 후식당에서 먹은 회덮밥은 유난히 속속 입에 들어가 맛이 있었다. 마침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딸아이의 학교친구엄마... 아이만 교회에 보내던 엄마는 처음으로 초청받아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참석한다기에 아직도 서먹서먹한 교회분위기에 어색해 하던 나도 동감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 편해졌다.

체육관에 들어서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교인들에 더 마음이 부담스러워졌다. 성도들이 좀 많으면 앉아서 응원하다 끝나는 것으로 묻어가련만... 반면 남편은 워낙 체육대회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맘먹고 있었다.

다재다능하다는 이웅희 전도사님의 진행으로 첫 번째 워밍업 게임은 짝을 지어 손으로 하는 게임이었다. 처음 마주하는 권사님과 손바닥을 부딪히며 게임을 하다보니 좀 친숙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해졌다. yellow, green, blue, red 4색으로 팀을 나누어'올스타청백전'을 생각나게 하는 〈공 이어돌리기〉, 〈커다란 공굴리기〉, 〈신발던져 원형에 넣기〉, 〈발에 묶은 상대방 풍선터뜨리기〉 등 게임을 하면서 무표정하던 성도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중간고사가 가까워서인지 청년들과 청소년은 적고 어린이들만 참여하였지만 아이들의 의욕적이고 강한 승부욕에 어른들마저 경쟁심이 치열해지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승부욕에 불타있는 우리 레드팀이 결국 2등인 블루팀을 10점 이상 차이로 재치고 우승을 하였고 넘치는 다양한 상품들에 놀랐다. 이 상품들은 성도분들에게 가정에서 두고 쓰지않는 새제품들을 기증받아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정성껏 포장하여 준비하셨다고 한다.

끝나고 한이름 받아가는 우리 딸 서영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서 어쩔 줄을 몰리했고 다 큰 어른이라도 선물은 좋은지 우리들도 은근 기분이 좋았다.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몸을 풀면서 성도들과 부대끼는 시간을 갖고 보니 다움교회가 친숙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게임에 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흥향하고 기뻐 받으실 예배였으리라 여겨지는 시간이었다.





#### 对此对多图如 对此一件答:多.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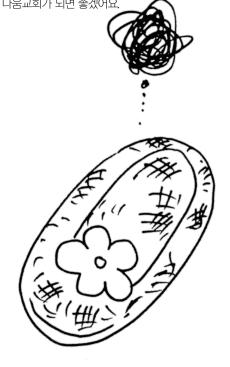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주일학교 송라헬입니다. 벌써 다움교회 2주년이 되었네요. 저는 다움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움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설교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GBS도 재미있어요. 큐티는 훨씬 재미있어요. 질문이 꼭 거룩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제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엄마가 제가 꼭 갖고 싶은 신발을 사주셨어요. 어느 날 친구가 신발을 밟아서 더러워진걸 보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너무 많이 아끼는 신발이라서 정말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깨끗하게 빨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신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저도 더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지만, 죄를 지어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하고 조금 더러워지면 물티슈로 막 닦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막 뛰어 놀다보니까 신발이 조금 더러워졌을 때는 빨리 닦았지만 많이 더러워지니까 그냥 내버려두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우리가 회

개 하지 않을 때 자꾸만 더러워져서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죄가 있을 땐 바로 바로 회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보면서 마음에 죄를 짓나 생각해보고 물티슈로 제 신발을 닦는 것처럼 빨리 빨리 예수님께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의 죄로 마음이 더러워지면 기도를 해서 회개를 해요. 우리 모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우리도 기쁘고 친구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셔요. 저는 제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신기하게도 말만 하면 술술 따라왔어요. 그럴 때 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은 제 친구 승현이가 교회 나오길 예수님께 기도해요. 승현이네 집은 불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크리스마스때는 저랑 같이 찬양도 불렀어요. 그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또 오고 싶어 하는데 승현이 엄마가 허락을 안해서 속상해 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제 친구랑 같이 오게 해달라구요. 저는 다움교회가 정말 너무 많이 좋아요. 교회에 가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우리 다움교회가 진심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다움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양승언 목사



1. 만약 태양 빛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 빛은 물론 호흡을 위해 필요한 공기, 물 등,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자체. 이것을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헤아려볼 때, 아무리 감사해도 우리의 감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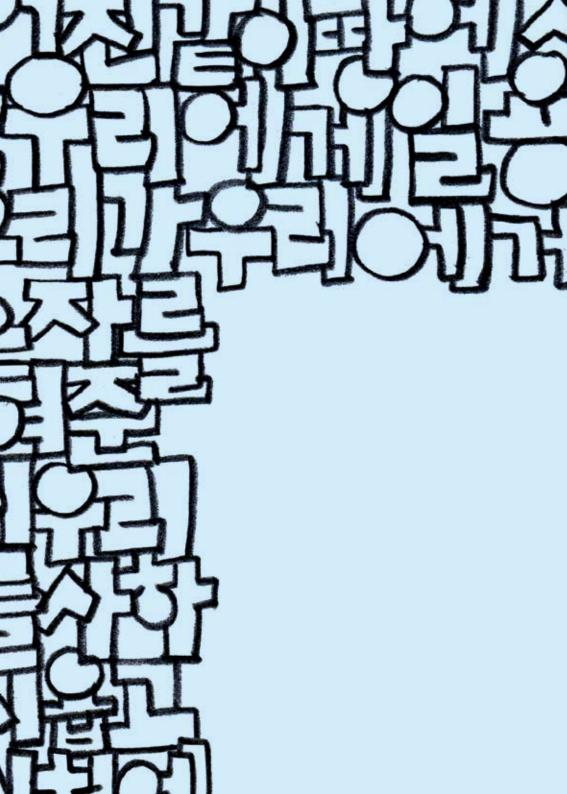
2 기끔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헌금은 많이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부담 감이나 의무감으로 헌금한다면, 그것은 헌금하는 사람에게도 무익하며 하나님도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감사한 만큼만, 기쁨으로 드릴만큼만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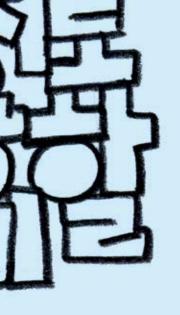
3. 물론 감사하는 마음과 달리, 드릴 수 있는 것이 적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적게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분이 우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4. 우리가 헌금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헌금하였기에, 나머지는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다짐으로서 그 일부를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5. 개척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헌금은 얼마나 걷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교회를 걱정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답변은 "넉넉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낸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난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히 후히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넉넉합니다.

6.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 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수 있는 만큼만 헌금할 줄 아는 다움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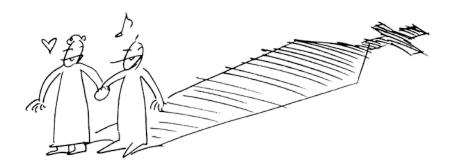








# TJERNIZHIPR



1.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움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다움교회는 교회 간판이 없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 사용하다 보니, 처음에는 설치할 곳이 없어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교육과 교제를 위한 주중모임공간인 다움하우스를 만들었을때, 간판을 달고픈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어도서관을 오픈하면서 간판을 설치할 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다움교회가 설치한 첫 간판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간판이라는 사실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간판 없이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회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허공에 달린 간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지길 바랍니다.

3. 또한 다움교회는 이름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한 3월까지 첫 기도모임 시작부터 6개월을 이름 없이 지냈습니다. 다움하우스 1호를 구할 때도 어느 교회에서 왔 냐고 물었을 때 바로 답변을 못해 이상하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실 때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이웃들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이 저곳에 많이 드나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회 이름도, 교회 간판도 없이 교회가 존재한 것 자체가 기적일지 모릅니다.

4.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품었던 단어 중 하나는 "함께"와 "모두"였습니다. 개척 장소도, 교회 이름도 함께 짓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한두 사람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실 바랬고, 이를 통해 세워질 교회의 주인공이자 자랑은 "모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름 없이 지냈고, 이로 인해 불편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함께 하는 즐거움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5. 교회 간판과 이름은 물론, 다움교회는 어떤 교회 홍보물도, 흔한 교회 전단지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좀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이나 이미지가 아닌, 존재와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홍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6.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조금은 "미련하고 허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세상에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래서 될까?" 싶을 정도의 미련하고 허술한 방법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움 교회의 자기 PR 방법일지 모릅니다.

7.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무형의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데 온전히 집중할 줄이는 다음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편집부

# Auni Arzhinsti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곳이다. 기다림이다.(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은쉐의 샘이다.

쉼터이고, 실링센터다. 노후 대책이다.

> 기도응답의 덩쿨이다. (덩쿨처럼 줄줄이 받은 기도응답)

특별한 행복이다. 오랜 기다림의 생수 같다. 어려울 때 안식을 취하는 곳이다.

언제나 열린 곳이다.(늘 환영 받는 곳) 한 주의 마무리다.(금요일 저녁 다락방)

가정의 피난처다.
(가정에서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집안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진로에 대해 의연하게 행동하는 남자들이 다락방에 화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상담도 하고 조연도 구하는 그런 장소)















비밀의 정원:

밖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문을 열고 정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어 행복하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밖에서는 모르는데 다락방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향기와 행복과 치유가 있어서 우리 다락방은 비밀의 정원같다.

신정:

뭐든지 말해도 다 받아주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신정엄마처럼 다락방에서는 뭐든지 말해도 다 받아수고 달래수고 위로해수고 기도해수는 순장님과 순원들이 마치 친정엄마와 같아서..

양호실:

양호실은 작은 상처 나도 반창고 붙이러 가고, 조금만 배 아파도 가서 누워서 쉴 수 있는 휴식처 같은 공간이라... 다락방에 정말 작은 기도 부탁도 드리고, 아픈 심정 토로하기도 하며 힐링 되는 곳.

·[H]:

집에서 중심 같은, 평안한 휴식이 되는 공간.

영육의 휴식서이며 충전소: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하는 양식으로 쉼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

화장실:

은밀하고도 사사로운 이곳은 무엇이든 부끄러움 없이 편히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무거운 삶의 짐과 문제를 쏟아내고 가벼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상쾌하고 힘차게 나서게 하는 곳이기에~



편집부



- ♥ 너무나도 귀한 우리 다락방식구들 한분 한분을 만난 것은 올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며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다락방 식구들은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고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말씀으로 순원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했는데 우리 순원들 방향을 잘 잡고 조금씩 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요.
- ▼ 혼자 기면 수없이 길을 헤매고 넘어질 신앙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신 우리 순원들께 감사드려요.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하며 주님 닮아가고자 없는 시간 쪼개서 허둥지둥 다락방에 모여드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 품에 파고드는 어린 병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에 함께 싸우는 영적 전우들, 당신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된 모두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 ♥ 사랑하는 집사님들, 늘 영육 간에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기도합니다.♡

- ♥ 모든 면에서 순장보다 더 뛰어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봉사에 앞장서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순원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락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 ♥ 우리 다락방식구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 위로하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기를 기도합니다.
- ♥ 부모님과 가족들의 병간호로 바쁘고 힘든 일로 얼굴 보는 일이 뜸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이 짠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안에서 다락방이란 한 가 족이라서 이겠지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 ♥ 저의 부족함에 부담과 염려로 시작한 다락방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갈 힘 얻는 "기쁨과 회복의 옹달샘"이 되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마음 다해 다락방 사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 ♥ 결코 쉽지 않은 인생길을 빨강, 파랑, 노랑 우산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다락뱅! 때론 우산이 조금 찢어질 때라도 대장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순원들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 ▼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락방에서 울고 웃으며 서로를 붙들어 주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주 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 ♥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 순장으로 섬기고 있으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그럼에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려요..사람을 세워 가시는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더하니 여러분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알듯도 합니다. 미련하고 둔하게시리 못난 순장을 잘 참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선생된 그대들이여~



신연숙



Junga 1/201-10/01/2

저희 가정은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처음으로 다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믿음 생활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 같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은 노를 잃어버린 뱃사공마냥 하염없이 뒤로 흘러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락방을 통해 그 동안 뒤쳐진 저에게 다시 힘껏 노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손길을 내셨습니다. 다락방은 이사계획이 있어 나중에 하려했지만 목사님은 학기 시작할 때 같이 합류하고 이사 후 사정은 그때 다시 고려해 보자고 하시며 서초4 다락방에 저를 배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음을 여러 일을 겪고 나서야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락방을 배정받지 못했더라면 지난 초여름에 겪은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순장님의 위로와 조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남은 일들도 하나님의 때에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붙잡는다'는 어색하게만 들리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다락방은 순장님을 제외하곤 모두 저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하지만, 신앙 성숙도로 보면 모두 저보다 선배여서, 소그룹 공부할 때나,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도 하나님은 다락방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또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성경공부를 해 본적이 없는 제게 마치 초등 1학년생이 학교가기를 기다리듯 성경공부를 기다리게 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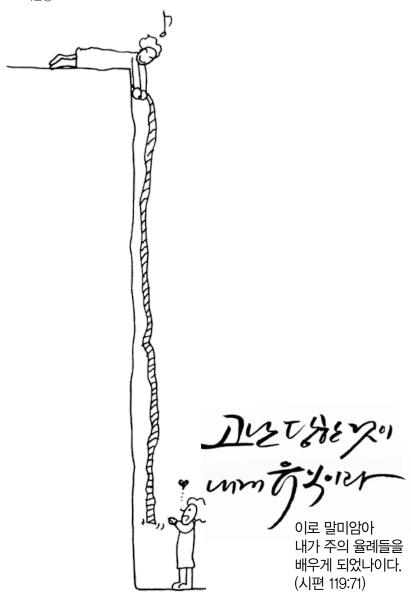
하나님은 또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려 주일학교 사역에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제대로 하나님을 믿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경적 지식도 턱없이 부족하고, 주일학교도다닌 적이 없는 제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게다가교회를 소개시켜준 분이 다움엔 일군이 많으니 봉사 걱정할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하셨기에 이제 교회가 정해졌으니 퇴보해버린 신앙을 내 방법대로 다시 키우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1월 중순에 있었던 주일학교 겨울수련회에 아직 낯설어하는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에 가게 되었고 그 후에 교사로 섬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너무 부족한 제 자신을 알기에 답변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다움교회를 소개해준 분께 의논하니 본인은 당장 사역하고 싶은데 오히려 대기 중이라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 순종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가정에 자녀의 복을 받은 자로 아이들이 있는 주일학교에서 갚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셔서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내 가족, 내 주위사람들에 그치던 제 기도 대상을 주일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교회로 키우시고,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이유와, 그 능력과 필요를 제게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임을 믿습니다.

7월부터 주일학교 회계 일을 맡게 되면서, 그 책임감으로 주일 아침 집을 나서며 온전히 예배에 충실하려는 마음보다는 그곳 일에 더 신경 쓰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변화와 어려움,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감당해 낼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 천사의 손길을 항상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흠뻑 느끼며 이번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저의 처음 사랑을 다시 품길 기도하며 집을 나서겠습니다.



박은영



처음 다락방에 첫 모임을 가진 날 너무나 다른 모습,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라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까...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같이 마음을 나눌수 있을까? 우리에게 공통점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 너" 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으로서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데 내가 다른 이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 하나 공통점인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이라 다른 지체의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다른 지체 도 너무나 연약한 어린양인줄 알기에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7명의 순원들 중 5명의 자녀가 중2라는 공통점을 주셔서 자녀 양육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시고 서로 위 로하게 하셨고, 인생의 큰 역경에 마주한 한 생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고 손잡이줄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다락방 순원들은 주일날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점심을 준비하며 섬김으로 얻는 커다란 기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 순원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신 고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시고 나의 고난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줄 귀한 동역자들을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다만 다락방이라는 공동체안에서 우리끼리의 축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요한복음을 마주하며 향긋한 커피한잔에 사랑을 듬뿍 담아 주시는 순장님의 섬김에 감시하며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 TONE DOWN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있듯이 삶의 모습 또한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빨강, 어떤 이는 핑크색, 갈색, 회색, 검정, 노랑 흰색… 수많은 색깔들은 어떤 색이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조각보를 이룹니다. 그러나 모두가 욕심껏 色을 드러낸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없는 그냥 조각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색깔을 한 단계 내려놓고 섬김을 실천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조각보일 것입니다." \_ 조각보 제작 뒷이야기 중에서

1. 우리교회가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는 조각보는 다양한 모양의 천과 다양한 색깔의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다움교회가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만이가지는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2. 조각보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야 할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만 이 십자가는 각자가 자신의 색을 맘껏 드러낸다면 결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색깔을 내려놓고 섬길 때. 자신의 색을 "TONE DOWN"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만

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과 의지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신의 색을 집착하고 그 색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진정한 나는 나만의 색깔을 "TONE DOWN"할 때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색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 자주, 항상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야말로 자만심이 쉽게 자라지 못하는 토양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앞으로 주어질 것들에 미리 감사할 줄 알고, 무 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실수는 하지만 실패하지 않으며, 더딜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반성은 자기연민에 빠진 우리를 진정한 자기사랑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5. 셋째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나만의 색을 고집하게 만드는 것은 상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지위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색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을 가지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부조리, 우리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웃어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사소한 문제에 스스로 매여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 진지 해야 하지만 결코 근엄해지지 마십시오. 무엇에 대해 근엄해 지는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해 서도 근엄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7.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TONE DOWN" 된 사람인지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TONE DOWN"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大和社社艺人了多知







- 제 인생의 터닝 포인 트가 되는 제자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겸손과 순 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아버지이 심을 압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훈련받는 동안 날마다 선하신하나님을 맛보아 알며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주 여호와를 즐거워하여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다움교회의 첫 제지반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한걸음씩 성장하고 싶습니다.

- 깨진 질그릇 같은 제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지만 말씀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훈련이 되길 기대합니다.
- 떨리는 마음으로 첫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 예수님 옷자락을 꼭 붙잡습니다. 순전히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제자반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막상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게 되니, 제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제자로 불러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의 신앙여정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 제 신앙과 삶을 다시 성찰하는 훈련이 되도록, 1년 훈련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며 하나 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소명이 더욱 엄중하게 가슴에 다가 와 두려움마저 듭니다.
- 나는 말씀을 좇아만 다니는 무리 중 한명인가, 말씀대로 사는 제자인가 늘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 좋은 목사님, 집사님들을 선생님들로 보내 주시고 말씀의 훈련으로 강한 일군으로 거듭날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후원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신 말씀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저희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서로를 세우는데 초점을 더 맞추겠습니다.
- 제자훈련을 통해 머리와 가슴이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은이영

#### 12 2mer - 23:3



성 금요일이 지나고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에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송을 부르며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지난 일 년 간 목사님과 함께 훈련 받았던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오랜 시간 나누고 기도했던 여러 기도 제목들과 가족들 이름, 얼굴들, 이제는 내 식구같이 되어버린 그 익숙한 이름들과 기도들이 내 입에 붙어 행여라도 교회에서 만나면 덥석 손을 잡고 인사 나누던 일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일 년을 매주 말씀공부와 예배로 다락으로 만나면서 쌓았던 관계는 세상 어느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묶인 특별한 관계임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총무로서 부담이 컸고 더구나 제자반 1기이기에 시작할 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밀려 왔지만 하나님께서 각자를 만져 가시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 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인도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씩 기도의 열매를 맺어 갈 때마다 당사자인 집사님들 이 상으로 뛸 듯이 기뻤고 그 힘주심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기획자이시자 연출가이십니다. 아마 드라마를 쓰셨다면 대박 드라마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유학중인 제 큰 아들이 가장으로 학생으로 공부 과정 중에 너무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부딪힌 어려운 고비들을 은혜로 막아주셨는데 겨우 한고비 넘기면 더 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중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온 가족이 급히 서울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려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아멘~!!" 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겨우 숨을 돌리는 순간 아들로부터 황급한 연락이와서 보니 기내에서 먹은 게 급체를 하여 다음 날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4번이나 토하고 설사와 복통이 겹치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여지면서 긴급 기도 부탁과 함께 그간 알고 있던 모든 급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다 새벽에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을 무사히 넘겨주시고 다행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자식이 뭔지요 눈물의 기도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이상 낮아질 수가 없을 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혼자 남아 압복강 나루에서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을 하였던 것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는 달리 결국 아들은 그 토하고 힘든 밤을 보낸 후 인터뷰했던 곳,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곳으로 결정이 되어 그 곳에서 가족들과 새로운 미래를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려 주시고자 주변의 용사들을 다 보내게 하시고 겨우 300명만 남기게 하셔서 승리 후 오로지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 인내와 순종으로 저를 이끄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며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 安はA12 Aかるでうという



#### 왠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는 "성경연구반!"

이름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재미있는 연구반 입니다. 현실 세계에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에게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난해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나도 세상 속에 나갈 때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나타 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훌륭한 자녀로 세상에 세워 주실 거리는 확신을 성경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며, 이 좋은 성경말씀이 더 알고 싶어 졌습니다. 저처럼 성경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되어 잘 읽혀 지지도 않는데, 이 시간은 현실세계를 근거로 성경말씀과 접목 시켜 설명해 주시니 이해도



잘 되고 이 시간이 참 재밌고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저는 다음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에는 너무 나 부끄러울 정도로 주일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잠시 참석하고, 일주일을 성경말씀도 한 번 읽어 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드리는 불량 성도입니다.

저처럼 신앙이 약한 사람은 성경 말씀이나 설교말씀이 어렵고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은 세상 사람에 가까운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초대해 주신 선생님. 몸과 마음에 쏙쏙 좋은말씀 들려주시는 목사님. 다음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항상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성도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울러 평일 오전에 하는 이 성경공부 시간을 좀 더 주위에 알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Make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다움의 공동체, 개척 초기부터 꿈꾸어왔던 선교적 공동체로 개척이라는 것에 걸맞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행복하고자 애써온 다움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밖에는 라일락과 함께 여러 가지 꽃들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가지 같은데 새싹이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어여쁜 색을 드러내면서 돋아 오르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교회 두 돌을 기념하게 되니 더할 수 없이 기쁜 주일입니다. 다움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예배와 가족모임을 하며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녹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른아이 모두가마음껏 뛰며 웃으며 즐거운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회에서는 마음 놓고 즐거워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권사회에서 주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하는 일이라 머리 속으로 먼저 큰 그림을 그려 봅니다. 임원회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지 계획을 세우고



다움 가족 감사의 날을 한 달을 앞두고 해야 할일의 계획을 날짜와 시간 별로 맞 추어 놓았습니다. 4월의 나의 달력에 빽 빽이 적어 놓은 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지 꼼꼼히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내 었습니다.

권사회 임원4명, 몇 명 안되는 임원 임에도 서로 시간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도 시간 되는대로 의논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때마다 돕는 손길도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함께 뛰는 임원들 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날 속에서 남편의 몸에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잘못하게 되어 신경쓰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 찾아왔지만...이제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을 감당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행사에 선물로 쓸 기증품을 성도들에게 부탁 드렸을 때 다섯 달 전에 다른 일로 물품 기증을 받은 일이 있어서 별 기대 안하고 성도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두었는데...... 어찌 된일입니까? 넘치도록 들어 온 물품들을 기증하여주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선물은 장애우들의 작업하는 곳, 굿윌스토아에서 장만 하였습니다. 금요일 다락방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임원들은 2000여개 되는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바쁜 손길로 움직였습니다.

다움부의 토요교실에서 만든 쿠키도 전교인이 다함께 맛볼수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식사의 인원도 적당히 잘 맞추어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 게임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에 이르기까지함께 한바탕 뛰며 즐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식당 봉사에 순장님들이 나 서서 도와주시고 뒷마무리까지 해 주심으로 권사님들의 게임 진행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전교인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감사합니다.

이번 다움 창립2주년 감사예배와 가족모임을 통해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을 위하여 희생을 지불할 수 있는 성숙한 다 움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립 2주년 귀한 모습으로 성장한 다움의 공동 체I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ZXHIX XXXI



첫아이 고3, 첫 산행을 하듯 산의 높이보다 무게감을 더 느끼는 고3 초보 엄마. 무더위가 지나고 수시접수를 앞 둔 시점에 아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학부모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잘 세팅된 테이블과 다과, A4용지에 잘 정리된 기도제목들. 수고해 주시는 집사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의 섬김으로 기도회가 경건하게 잘 준비되어 있었다. 모인어머니들과 함께 찬양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나에게는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힘을 느끼게 되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힘들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서 한주씩 돌아가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평소 듣지 못했던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이기에 기대감을 갖고 듣게 되었다. 느헤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긴 여정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도록,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이들 인생의 첫 자리가 되어야 함을 담대히 선포해 주셨다.



아이를 위해 기도회에 나간다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회 두 회 이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이보다 먼저 내 영혼을 만져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평안 가운데로 나를 있게 하시어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셨다. 내 영이 회복 되어서있지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가 한결 여유롭고 아이를 위해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풍성해졌다.

또한 모든 아이들을 함께 중보하며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에 감사하며 한 아이 한 아이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고3 중압감과 체력고갈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던 우리 아이들이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건 같다. 대입의 결과는 다를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을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아이들 인생의 어려운 첫 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수고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 강도사님, 지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혜연

#### Thurson 2421

학부모기도회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입시의 과정을 알리거나 지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와 주님의 간섭하시는 과정을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저는 뿌리 깊은 유교집안에 불교적 신앙까지 더해진 집의 맏며느리로 일 년에 열 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며 지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저로 하여금 유년시절부터 대학부까지 20년 넘게 자라온 신앙과 믿음은 주머니 속에 잠시 넣어두어야만 했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지낸 세월은 부족할 거 없던 저에게 이유 없는 해망함과 우울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신앙의 뿌리는 살아 있은 듯 배운게 말씀이고 기도였던 이유로 다락방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한걸음씩 다가가는 노력을 했었지요. 하지만 드러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가져올 가정의 큰 풍랑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시련을 감당하기엔 제믿음 또한 바닥이었기에 저는 금요일 다락방을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친구부모님을 따라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동안 하나님께 한쪽 다리만을 걸어놓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반쪽째리 신앙생활을 한지 또 10여년, 큰 아이의 입시로 인해 가장 다급한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일도,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저에게 는 아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며 저를 20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과 다를 바 없이 좋은 학교,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 욕심,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자랑하고 그 공을 나의 부지런함과 정보력으로 인함으로 공치시하고 싶은 마음, 또한 다른 부모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며 즐기고 싶은 유치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욕심으로 아이에게 맞지 않는 실기를 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자 요령을 부려봤으며 허향지원을 하였음에도 결국 맞지 않는 곳에는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며 수시6 번, 정시8번의 입시에서 다 낙방하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피 말리는 추가합격의 결과를 기다리다 예비번호 2번까지 받고 결국 코앞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낙심하고 좌절도 겪게 하였습니다. 재수학원을 등록하고 일주일을 학원을 다녔습니다. 모든게 제 잘못 같았었고, 힘들게 재수학원을 다니며 지친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도 하

나님께 원망보다는 분명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있으실 것이라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시라면 받이들이겠노라고 순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기도회를 통해 제가 발전하고 성숙해진 것은 요술램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주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아이를 맡기는 훈련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것만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유아적인 기도를 하던 저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궁금해 하며 내가 먼저 앞장서고 보고 하기보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묻고 의논하는 방법으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허락하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이유는 분명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시라는 거, 결국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친 모습으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학원을 다닌 지 일주일째 주말. 정시2차모집 접수기간에 모든 걸 포기한 마음으로 몇 학교에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한 우리 모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적같이 합격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100 대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학과는 기독교문학과였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우고 만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를 자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처음 발 딛는 대학생활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셨고 엄마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아빠의 구원을 위해 동생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셨고 이 모든 선을 위해 그동안의 시련과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 끝에 응답을 주셨기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란 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며 인간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 밖의 결과였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며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복음을 전할 통로로 쓰이기를 소망하는 큰딸은 지금 학교에서 하나님 깊이 배우기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음주가 없는 과에서 채플 수업을 하고 엠티에서 찬양을 하며 모든 교수님들 은 수업 전 그 입을 통해 하나님 목소리만 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시고 과제로는 성경 바로알 기와 성경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통해 바람직하고 건전한 크리스챤 청년 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이상으로 낮아지게 도 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기도 하신다는걸 깨달았으니 앞으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Mrt Zeth olg



1.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해 겨울,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도시의 우체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성탄절 카드를 몇 장 붙이려고 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성탄 시즌이다 보니 유난히 그날따라 줄이 길었습니다. 그 때 우체국 직원이 줄 서 있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별한 우편물이 아니고 일반 우표나 엽서를 사실 분들은 복도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십시오."

2 그러자 많은 시람이 복도 쪽 자동판매기에서 우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그줄에 서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가셔서 우표를 뽑으시면 더 빠른데요" 그러자 할머니는 우체국 직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기계는 저를 건강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3. 이 말에 우체국 직원이 의이해 하면서 무슨 뜻인지를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오시는 것 아시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고 또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어서, 여기에 오면 제 마음이 즐겁고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 기계는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4. 우체국은 우표를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직원 역시 보다 편하게 우표를 파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우체국에 가는 이유는 우표만을 사기 위해서 가 아니었습니다. 우표만을 사기 원했다면 자동판매기를 이용했을 것이지만, 우표 이상의 가치를 사기 위해 불편을 무릎 쓰고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가져다 주는 따스함을 누리기 위해 우체국에 갔던 것입니다.

5.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만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그것입니다. 생산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주기 위해 조금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6.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편과 이픔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동판매기에서 우표를 사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때를 줄을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사실 우리 교회는 불편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 보니, 준비와 뒷정리를 위해 적잖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체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섬기고 계십니다. 강당을 빌려 사용하여 불편한 점도 많지만, 이를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머지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 불편을 선택할 줄 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편집부

#### CAR JENO FEB COUNTY ?

매주 성경암송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6개월 정도 어린 아기들부터 4~5세 정도 아기들이 말씀암송에 대한 열정들이 있어 암송하겠다고 나와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을 합니다. 그중에는 진짜 발음이 조금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암송을 다해 온 친구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암송은 고린도전서 7장23절



말씀으로 어린친구들부터 고학년 친구들까지 아주 다 즐거이 암송에 동참했답니다.

요즘 저희 주일학교는 한 주일에 말씀 하나씩 암송함은 기본이고 전도사님 이하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 암송과 함께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송에 선물을 줘야할 정도로 익숙함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무런 달콤함이 없어도 말씀의 유익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시편(9:10) 하신 시편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암송했다고 만나면 암송점검부터 먼저 할 정도이고 미리 암송해 와서는 시치미 뚝 떼고 앉았다가 좔좔 암송하는 친구도 있지요. 기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도 받아 온 친구들인 수진이랑 은수도 곧잘 암송하는데, 그 동안은 쑥스러워 안방 장군이었던 수진이가 드디어 앞으로 나가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송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온 얘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날아갈듯한 새 힘을 얻는답니다.





이명희

#### 大大大大大大大 PHAIZ...

이번 어린이 주일학교 겨울수련회는 교회에서 하루 동안 열렸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말씀을 경험하길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나라 세우기'라는 주제로 여호수이서 말씀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회를 더 잘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여, 하나 되는 주일학교 되길 소망하며 서로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어떻게 믿을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교회에 이런 곳도 있었냐고 놀라며 반기며 좋아라하는 어린 친구들이 대견했습니다. 우리교회 다움하우스I호만 알던 아이들이 다움하우스 2호와 3호에 처음 와 본다면서 너무 좋다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움하우스와 공원놀이터 등 여러 장 소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게임들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공원에 나오셨던 동네 어른들께서도 저희가 준비한 어묵탕 나눠 드시기도 하며, 우리교회를 알고 기뻐하셨습니 다. 특히 다움3호 석정룸에서 진행된 '냉장고를 부탁해'코너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



번 수련회에서 특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는 음식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회복한 어린친구들은 수련회 어땠냐고 묻는 말에 재미있었다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맛있었다"는 대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교회 주일학교에는 특히 전도에 뜨거움이 있는 학부모님과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수련회에도 많은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 집안에서 혼자 교회 나오며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는 친구도 있고, 매번 수련회마다 친구 전도해 와서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어리지만 믿음은 큰 동역자 친구들도 많아서 이번 수련회도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행복한하나님나라 잔치 같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신 전도사님, 수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특별하신 사랑으로 달려와 삼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자원하여 기쁘게 감당하여 주신 학부모님들, 또 부탁에 흔쾌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예쁜 청년 자매님, 보이지 않은 곳에서 기도로 삼겨주신 모든 분들과 순장님들,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고 이모저모로 애써주시고 함께 일손 모으신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 大战时 冲充分时





청소년부 수련회가 1월 30일부터 1박2일간 '믿음 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종도 베다니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으로 어색함과 긴장을 풀고 함께 뛰고 춤추며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범했던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발자국을 한걸음 더 옮기게 하는 설

교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 놓고 결단하는 기도회 시간은 참으로 은혜로 웠습니다. 집회 후에는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주제로 "우리 부모님 이 우리 나이일 때" 라는 부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 난 후,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고 게임을 하며 자유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튿날, 우리들은 QT에 대해서 알아보며 QT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낭만 넘치는 겨울바닷가에서 추위도 잊은 채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쉬었다며 이렇게 긴 시간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린 것은 처음이라는 아이들, 설교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기도드리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가 그동안 공부와 스마트폰에 찌들어 있던 학생들에게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갔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이 아이들의 10년 그리고 20년 뒤가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들을통해 평범한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부

### DB13611121





청소년 주일학교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며 교복을 입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복입고 교회가자"라는 생각은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복을 입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모두가 단정히 교복을 입고 왔고 여느때와는 뭔지 조금 다른 느낌을 서로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겉모습만큼 마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선생님들도 아름답게 느끼셨다하니하나님께서도 참 기쁘게 받으셨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 가는 날도 아니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주일에도 교복을 입는다는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복에 이름표도 달려있고, 활동도 자유롭지 않아 여러 가지 면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함께 교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부활의 의미를 담은 계란을 전해주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계란을 꾸몄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Horagery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그동안 큐티한 본문인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경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성경 골든벨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골든벨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반별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과 또 진지하게 때로는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들은 보기 좋았습니다. 또 성경을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청소년들이 성경을 더욱더 알아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 넘치는 골든벨 시간이 끝난 후에 반별로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더 적극 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두호

#### 1/2019 TEHLED ...



안녕하세요? 대학청년부로 올라갈 예정인 정두호입니다. 지금 대학청년부로 올라가는 수험생부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2학년 때부터 다움교회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구요. 이곳에서 지내는 2년 동안은 제가 청소년이 된 이후로 겪었던 교회생활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2학년때의 제주도 여행에서부터 많은 후배들과 친해질수 있어서 어색했던 교회에 녹아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직후에 들은 찬양팀은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봉사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수험생부로 옮겨서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도, 사람이 적었던 만큼 저희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던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하게 1년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리고 그만큼 교회에 오기 귀찮았던 적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곳에서의 활동이 저한텐 녹아들어 일상을 지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럽 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다움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자라나며 더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이곳이 일주일에 한번 영혼 없이 몸만 갔다가 다시 몸만 나오는 곳이 이난 뜻 깊고 추억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이 되는 분들도 있고, 올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분들은 아주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사실 현재진행형이지만, 아무튼 그때 신앙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문도 많았고 납득할 수 없는 점도 많 았구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더 어린 나이에 고민을 품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죠. 게다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상대적으로 교회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갈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아깝다고 느끼죠(솔직히 말하자면 교회에 안 나간다고 공부를 더 많이 한다기보단 공부하고 남는 소중한 휴식시간을 교회에 쓰는 게 아까운 거 겠죠)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경스러울 정도의 생각을 하며 의문을 품고 고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가기가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고민 하면서 몇 번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이 나중에 더 깊고 넓 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을 품더라도, 고민을 하더라도, 방황을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잠시 쉬더라도 적어도 크리스챤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의 중심에 둔 상태로모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크리스챤으로서의 정체성은 간직한 채로 고민하고 실수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한테 다움교회와 선생님들께서 도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강도사 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온석훈

和老000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는 학생들을 보면 미안함뿐입니다. 다움 교회에 와서 처음 만 난 학생들을 오늘 졸업시키면서 교사의 역할을 제 대로 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 러분은 앞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동 료, 선후배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좀 더 보여주기 원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주의 음성" (국

제제자훈련원 발간) 이란 책을 참고삼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사 시대와 통일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잘 알고 있지요?

사무엘에게는 '엘리'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엘리 선생님은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축복하였고, 얼마 후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떼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때부터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생님인 엘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해 배워갑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엘리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선생님에게 달려갔지요.

<sup>&</sup>quot;선생님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sup>&</sup>quot;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잠자리로 돌아가 다시 잠을 청하는데 다시 '사무엘' 하고 부르는 음성에 선생님에게 달려 갔습니다. 선생님은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고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일이 세 번째 일어났을 때, 비로소 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아마도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구나. 가서 누웠다가 다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 자리에 누웠고, 곧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시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 왕에게 기름 붓는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혹시 사무엘의 선생님 엘리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성경을 보면 엘리는 그다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이어 받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데도, 아들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나약한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역사하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선생님으로써 자신의 제자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줌으로써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몇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는 연약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많이 필요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도전을 주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린 나이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힘든 유소년기, 청년기를 지내는 바로 옆의 친구, 선후배를 일으켜 세우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선생님은 부족했지만 여러분은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청출어램!



권영원

# からわらずる・14の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해주셨는지, 왜 그러한 방법으로 하셔야 했는지다 알거나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였고, 제 자신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은 채 습관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내뱉는 것이 아닐까라고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또 수련회 시간을 보내며 함께 하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고 순진무구한 새내기 아이들, 예남이, 규희, 현정이, 영민이, 그리고 그 사랑스런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지은이, 넓고도 깊은 지식으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정기용 집사님, 기도로 함께 해준 미희 누나, 수련회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모든 일정과 말씀을 준비해 오신 원성묵 강도사님, 이 분들을 바로 옆에서 보며 '참으로 귀한 분들이 여기에 함께 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을 떠올리면 마음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배우는 수련회였던 것 같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모든 것들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 misheller tomis

지난 1년 동안의 다움 대학청년부를 되돌아봅니다. 화려한 찬양팀, 좋은 예배 시설,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규모가 큰 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은 우리 다움교회 대학청년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함께 모여 예배하고 GBS를 통해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한명 한명 대학청년부 지체들의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하며 매주가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기에 모두가 서로에 대해알 수 있고함께할수 있어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과 열정적인 찬양 인도와 말씀으로 대학청년부를 섬기고 계신 원성묵 강도사님,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리더로 섬겨주고 있는 영원 형제와 지은 자매를 보며 많은 부분에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들을 통해 나의 부족함 가운데 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귀한 지체들을 잘 섬기는 못했던 제 자신의 부족함이 마음 한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유학 중으로, 직장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우리 대학청년부 공동체가 낯설고, 아직은 잘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길 소망하며 다음 대학청년부는 함께 기도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대학청년부 지체들을 볼 때마다 많은 것들이 기대됩니다.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려고 하는 그들의 순수한 모습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움 대학청년부가 규모는 작지만 서로를 향한 더 큰 사랑과 섬김, 더 깊은 말씀 공부와 그 가운데 깊은 삶의 나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성장과 젊은 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해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DALAZZAN TYKK

교회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혼은 안 났니? 재미는 있었니?

학교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듣게 되는 재미라는 말. 인간은 유희적인 존재. 아니 유희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이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교회 에 오는 것이 재미있어야 된다는 기치 아래 선생님들과 달려온 2년 동안의 주일학교 생활. 목사님의 이 질문은 어느덧 저에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재미라는 주제를 다시 일깨우 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아이들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발달 사항에 대한 연령대별 KEY WORD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교사로서 알아야 될 대상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아 그런 거였구나 여기 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선생님들. 나조차도 목사님이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듣고 희미했던 생각들이 순간 명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향해 선생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저 인간들은 원래 그래'라는 한 마디 말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부담감으로부터 '그래 이제부터는 자유하라'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세상은 지라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읽는 능력을 요구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진리를 지켜내는 능력을 어떻게 길러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은 진리를 지켜









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능력,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지인의 조언 가운데 우리가 보는 책도 29번 그 내용을 잊어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복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습관들을 익히도록 하는 일에 선생님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거 이미 알아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선생된 자를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교사인 우리 자신부터 인정받기 위해 힘쓰기보다 남을 인정하며,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며, 서로 연합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할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서로에게 가르친 말씀과 배움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선생이라는 이름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덜 부끄러울테니 말입니다. 더불어신나고 재미있는 주일학교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교사수련회 준비를 위해수고해 주신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さいなるとスタなるのはり



1. 남아프리카 잠비아에 바벰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유난히 범죄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반사회적 범죄가 거의 없고, 재범률, 범죄한 사람이 다시 범하는 경우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 이렇게 범죄 율이 낮았던 이유는 바벰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2, 이 부족은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를 마을 한 가운데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며칠간한 마디씩 던진다고 합니다.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감사했어요." "저를 보고 웃어줘서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옆에 있어줘서 감사했어요." "결혼할 때 당신이가장 기뻐해줘서 감사했어요." 비난의 말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미담, 선행, 장점 등을 한 마디씩 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착했던과가를 깨닫게 한 후, 새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로 재판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3. 인간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에 맞춰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군 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인답게 행동하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이 형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은 형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벰바 부족의 재판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문제는 너무나 자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는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4.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는 순간, 열등감과 패배의식, 혹은 우월감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5.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임할 심판과 고난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심판 중에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가지 없어 느껴지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7. 또한 서로에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리 말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다움의 식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 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 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_ 베드로전서 29 ADJ 4/2015/25

〈어린이 주일학교〉

예수님은 동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맛있는 거 많이 주시는 천사 같으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는 구원자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착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 예수님은 동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맛있는 거 많이 주시는 천사 같으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는 구원자이시다 나를 도화주시는 분이시다 착한 왕이시다

착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주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다. 최를 용서하는 분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평화주의자

>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은 새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고 바라봐 주시는 분.

예수님 하면 하나님과 천국 십자가가 떠오른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최를 회개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따라야 할 분이시며 나의 갈길을 인도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분이십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 믿기 어렵지만, 한번쯤은 부활을 한번쯤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안제나 곁에 있으신 분 항상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숙이서도 함께 하실 분, 그리고 진리 항상 지켜수실 분 My Only One 안세나 내 편이신 분 항상 감사한 존재 내 최를 위해 돌아가시고 안제나 평등하시고 거룩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좋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낙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청소년 주일학교〉



#### 〈대학청년부〉

예수님은 그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변함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붙드시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다.

> 예수님은 울타리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평생 내 편인 가장 편한 친구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부모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북극성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와 빛 같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비타인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계속 기약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경을 성경으로 만드는 존재에서다.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주시는 목자에서다.



#### 〈다락방〉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솔루션이다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사랑이다 예수님의 내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분이다 예수님은 나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 '나바보'이시다 쉼터 칠리 희망 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해결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비발언덕' 입니다^^

예수님의 내 삶의 네비게이션

예수님은 나의 든든한 백 (가방 아니고!)이다. 안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작은 건가지 신경써주셔서 든든하므로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자 되신다. 아이들과 남편으로부터의 피난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천한 친구! 말당의 달인, 나를 너무 잘 아서서 결국 수님만이 오직 결쇠임을 교백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아침밥이에요 귀찮아서 안 먹으면 하루 종일 짬짱하고 힘들거든요. 아침에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면 든든해요. 나에게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되는 분이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늘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노안이 온 나에게 동보기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최고로 든든한 뺑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만능기KEY 예수면 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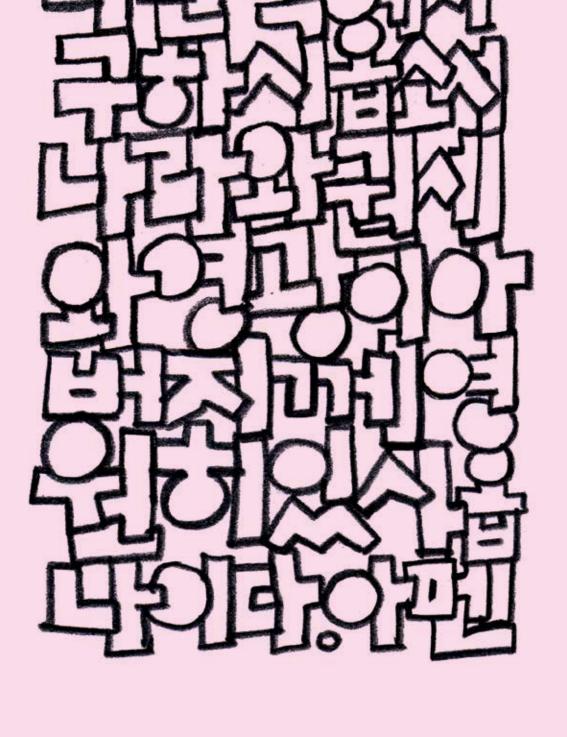


구원자, 사랑 그 자체, 항하 같은 분, 따뜻하게 성세하게 보등어주시는 분 부모와 같은 분,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 기다려주시다가 손을 내일면 잡아주시는 분

구릉처럼 부드러우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하늘의 구릉을
쳐다보고 자주 카메라로 구릉 사진을 찍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 같은 나를 택하여
당신모습처럼 다듬어 가시는 석공이시다.
예수님은 내게 오직 단 한분이신
절대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멘토이시다. 예수님께(성경)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닭고 싶은 분이기 때문 예수님은 나의 길잡이 되신다. 나의 갈 길을 물을 수 있고 인도해주시므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위로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윽한 눈빛이시다..^^ 무엇이든지 부끄럽지않게 얘기할 수 있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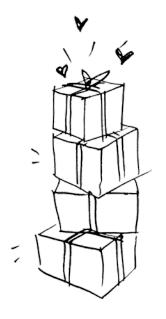






양승언 목사

フトはなれてない



1.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전화상담을 통해 돕는 생명의전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63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의 A 워커라는 목사님에 의해 설립된 생명의 전화는 1969년 우리나라에서 도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자원봉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생명의 전화에 총 3,679명이 전화를 걸어왔고, 이 중 85%가 자살을 하려다가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은 "힘들죠"라는 말 한 마디였다고 합니다. 이 말 한 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2 최근에 어느 형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십니다. 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기에, 업무적 스트레스가 결코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환자입장에서 불만을 표현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낙심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치료 받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다면 복된일이라고 생각하며 이겨낸다고 합니다.

3. 흔히 부자라고 말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넬 줄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교회를 개척한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다움교회는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드리고 교회명의로 된 재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월 재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달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교회는 가난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원칙 아닌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예배장소가 구해졌을 때, 필리핀 학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중 모임 공간인 다움하우스를 생겼을 때, 세상을 섬기기 위한 영어도서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움부라는 이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을 때,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이웃사랑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 또 다른 원칙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크게 예배와 훈련, 증거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비롯 우리가 가진 것을 이 세 가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 만원 이상의 재정을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되어 전체 재정과 사역의 1/3 가량을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6. 물론 지금 당장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안정된 후에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가난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섬기는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주는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우리는 얼마나 부요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10



# 

1. 재작년 7월에 다움 영어도서관을 개관하고 2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교회를 개척하여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 보니, 주중모임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제와양육을 위한 모임 공간인 다움하우스 1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중모임공간이생기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 세상을 위한공간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부담이었습니다.

2. 이런 부담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던 중, 〈영어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편히 책도 보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복음전파의 문도 열고 지역사회문화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기대했습니다. 물론 개척초기라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교회는 선교적일 때만 교회라는 민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영어도서관을 위한 공간을 오랫동안 찾았지만,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만족하면 부족한 다른 한 가지가 보이고, 마땅한 장소를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먼저 사용하길 바라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무와 주중모임공간으로 사용하던 다움하우스 1호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위한 공간은 별도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4. 이렇게 공간을 마련한 다음, 도서를 기증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증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많은 성도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고, 심지어는 타교회 성도 분들도 소식을 듣고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천 여권이 넘는 도서가 모여, 작지만 작지 않은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작은도서관 등록을 위해서는 보통 장서가 1천 여권 정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도움으로, 재정적으로도 부담 없이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5. 사실 도서와 공간 외에도 도서관 사역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음을 미리 알았다면, 시작조차 못했을지 모릅니다. 몰랐기에 용감하게 시작했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었고, 모르고 가는 길이라 은혜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6. 처음 도서관을 오픈할 때 특별히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픈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 철학은 다움의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7. 이제 도서관을 개관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도서관 간판을 설치했을 때, 다움교회가 설치한 첫 간판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간판이라는 사실에 남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부족하지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남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향한 다움의 꿈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가기를 소망해 보는 아침입니다.



### THE GOEHE ZAB





#### 다움 영어도서관 2주년 사역보고

#### 〈경과보고〉

2014년 3월 다움 영어도서관 설립추진

2014년 5월 다움 영어도서관을 위한 공간 확정

도서 기증 및 봉사자 모집 시작

2014년 6월 23일 작은도서관 등록(강남구청)

대표자: 양승언 / 소재지: 강남구 개포로 124길 7 1층

2014년 7월 14일 다음 영어도서관 개관

2015년 7월 28일 다움 영어도서관 1주년 감사예배

#### **〈사역보고** (2016년 7월 1일 기준) **〉**

●등록자 현황:총297명 등록 이용 중

●장서 현황: 도서 총 5,742권

●멀티미디어 자료:총516종구비

●학생이용현황:월 평균 379명 이용 중

●학생자원봉사 현황:월 평균 102명 참여

●학생제외 자원봉사자 : 월 평균 21 명 참여

●프로그램 현황: 연간 12 개 프로그램 개설

●프로그램이용학생 매월 평균218 명 참석

#### 〈운영 프로그램 〉

1\_ 피자무비데이 (영화관람 및 교제)

2 POP (Performance Oriented Program)

(영어 말하기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3\_ 학부모세미나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

4\_NIE(Newspaper in Education

(영자신문을 통해 배우는 영어프로그램)

5\_ 맘즈 북클럽 (어머니 영어독서모임)

6\_ 원어민영어 (제이슨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어수업)

7 빙뱅붐 (유아를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

8\_ 다함께 놀자 English (기초 영어읽기를 위한 프로그램)

9\_ 영어말하기 (초등생을 위한 영어말하기)

10\_ 버디리딩 (일대일 영어읽기 프로그램)

11\_ 영문법 (영어기초문법 ) 12 파닉스(기초파닉스 수업 )



이종란

## 可给我意识此的

저는 얼마전부터 영어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한 봉사자입니다. 제가 하는 봉사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영어프로그램입니다. 처음 봉사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봉사 경험도 없었고 저희 아이들이 회사에 다닐 만큼 다 커버려서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염려스러웠던 것은 저의 영어 울렁증이었지요. 영어에 관심도 있고 좋아하지만 종종 실수로 잘못 말하여 저희 아이들한테 핀잔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맑고 어린 영혼들에게 행여 잘못된 영어를 배우게 할까봐두려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출애 굽기 4장 10절 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약속으로받고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이어서 단풍잎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해보려고 평소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는 집 뒷산에 단풍잎을 주우러 올라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잎들을 주우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 이리 솜씨가 좋으신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 뭇잎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시간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함에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봉사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받은 은혜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번 어떤 내용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영어도 익힐까가 제 주된 고민이지요, 그런데 제가 실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수업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되어 예전보다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은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였구나. 수고했다." 그럼 저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서이렇게 대답하지요. "My pleasure, Lord!"



최예원

빈둥지 증후군, 갱년기장애, 우울증...처방은 첫째도 둘째도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기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봉사꺼리가 있다면 금상첨화! 최고의 처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다움영어도서관은 '빈들에 말라가던 풀' 같던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게 된 봉사는 누구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된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발걸음 할 때마다 감사. 감사 또 감사가 절로 우러났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수고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셔요?" "너무 감사합니다!"로 인시해주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나의 답변은 언제나 "you are welcome!"입니다. 두 딸이 모두 대학에 가며 집을 떠난 후 생산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우며 지난 8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고 다움영어도서관을 통해 응답해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선생님~ 오븐이 뭐예요?" "전자레인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오븐을 본 적이 없어요!" 2학년 한 아이가 가우뚱해하며 질문합니다. 수업시간에 나오는 'Dish Washer' 'Vacuum Cleaner' 등의 단어가 집에 없는 물건이라 낯설어 할 때 어려운 가정형편의 아이들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듭니다. 어느 형편에 있던지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아이들의 재능과 꿈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드는 순간이기도합니다. 한아이 한아이가 어쩌면 그리 다르고 반짝이는 개성으로 톡톡 튀는지... 각기 다른 색과 빛을 내는 보석처럼 보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첫만남의 긴장은 잠시이고 금방 편안한 사이가 되어 수업 이후에까지 질문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어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은 하늘을 찌르고 저는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미새처럼 마음이 바빠집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정말 매일 신나는 일들이 이어지는 기적의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라도 된 듯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 번 새 학기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나의 성장판을 자극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Thank you all, Thank God!



119



이경근

#### Att KOPUOT ZHEZ

어제 영어도서관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4\sim$ 6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공부가 늦게 끝나게 되어 6시30분까지 함께 영어공부하고 청소를 도와주고 7시까지 하게 됐습니다. 4시가 조금 지나니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방학이라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유난히도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도서관에가서 봉사한 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자원봉사자학생들이 1365사이트에 봉사 신청하는 날이라서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제가 겪고 느낀 세 시간은 저를 울컥울컥하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간사님의 수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울려내는 전화벨 소리에 뛰어가서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와 한명 한명 챙겨줬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가 올 때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 설명하고 아이들 과 친해지는 방법도 알려주며 봉사학생과 맞는 아이를 일대일 매칭을 해주었습니다. 봉사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자원봉사교육을 하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다녀가는 자원봉사자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과 아이들과 친해지고 영어책을 읽어주고 게임도하며 놀아주는 과정에 봉사학생이나 어린 친구들 모두 행복해 하며 좋은 경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공부하기에 바쁜 중고등학생들이 자원해서 하는 봉사라기보다는 봉사점수를 받기위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봉사의 기쁨을 체험하고 좋은 추억이 되어 나중에 봉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뭉클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영어도서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귀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사자로서 제가 한 역할은 DVD 틀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오디오 사용법도 알려주며 책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5학년 남학생 두 명이 들어 왔습니다. 간사님이 봉사학생에게 단어 외우게 시키고 시험도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친구들은 봉사자가 자기 또래로 보였는지 도움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제가 봐주기로 했는데 한 친구는 매주 목요일 선생님과 공부하는 그룹친구들 중 하나였고 한 친구는 어제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도 영어도서관에 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방학 때 매일 도서관에 들러 영어 공부하고 숙제하면 목요일에 맛있는 거 사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매일 도서관에 올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에 신경을 못 써 주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고 공부에 의욕이 없는 아이들인데 선생님이한 아이 한 아이에게 영어뿐 아니라 수학도 가르쳐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나도 좋아하며 선생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고 시험보고 외운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자신이 더 신기해했습니다. 스스로 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다움영어도서관이 이런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선생님이 단어 뜻만 외워 오라고 했는데 스펠링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책도 읽었다고 좋아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자꾸 떠오릅니다.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친구들에게 내일 또 와서 오늘처럼 공부하고 가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하면서 행복한 얼굴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가고 간사님과 자원봉사학생들과 함께 도서관 청소를 하고 봉사를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다움영어 도서관이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이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스쳐간 수많은 어린 친구들, 자원봉사자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간사님과 프로그램하시는 선생님들,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변화된다면 이웃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다움 도서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봉사 시간이었습니다.~~~!!



편집부

## でいれているから

1. 다움영어도서관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원어민 스토리텔링 1,2부 10회 강좌에 선착순 30명'이라는 문자를 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어머니들의 수업신청 전화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원은 채워졌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얻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다음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영어도서관에는 다양한 책과 시청각자료, 원어민 수준의 봉사자들은 있지만 원어민 봉사자가 없어 아쉬워하던 중 반기운 소식이 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캐나다출신 원어민 동 료 한분과 영어도서관에 봉사를 하시겠다는 다움 성도분의 연락을 받고 너무나 반갑고 감 사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첫 수업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대하는 아이들의 눈은 반짝반짝 하였고 그동안 도서관에서 갈고 닦은(?) 영어로 무엇이라도 한마디 건네 보려고 아이들의 입술은 달싹달싹 하였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말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 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열기와 어린이들의 수업 집중도는 놀라웠습니다.

2 '원어민선생님과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1기 수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제이슨 선생님 과의 긴장되고도 설레는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른 명의 아이들을 1부 2부로 나누어 10 주간에 걸쳐 진행된 원어민 선생님과의 만남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큰 도전과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원어민선생님은 더이상 낯설고 어색한 외국인이 아닙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제이슨 선생님과 매주 함께 섬겨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제이슨선생님이 보내오신 인사를 나눕니다.
To the staff and all the kids at Daoom Library,
my sincere thanks to all of you for allowing me the pleasure to come
and teach there. The kindness and warmth of all the staff there was so
welcoming and i enjoyed meeting all of you. I sincerely appreciated
the energy and excitement of all the kids that i had the chance to
meet. Your smiles and warm hearts are a testament to God's grace to
give me such a terrific opportunity. I hope i can have the chance to
come back and continue to give my time to help againJasyn-
저에게 가르침의 기쁨을 허락해주신, 다음영어도서관의 봉사자분들과 아이들에
게 감사드립니다.또, 영어도서관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친절과 따뜻함으로,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열정과 에너지, 봉사자 여러분들
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은혜로우신 주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이왔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제이슨-



편집부

## 71号, 多知爱家一

다움영어도서관 'Buddy Reading'(영어책 읽어주기) 봉사학생들의 나눔

신태연 (영동고I): 일단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보람참'이었다. 원래 몸이 지치는 일을 싫어하지만 여기서는 바쁠수록 더욱 기분이 좋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싶고, 뿌듯한감정을 안고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세원 (경기여고2):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와도일이보고 반겨주어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모르는 단어와발음을 설명해 주고, 때때로 게임도 같이하며 놀아주면서 오히려 내가 더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찾이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업태리 (압구정중3):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모르는 발음을 알려주고 이를 배워나가는 모습에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이들의 실력이 느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세라 (숙명여중3): 1.2학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었는데 3학년이라 할 수 있게되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책도 읽고책 외의 활동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또 아이들에게 언어에 대한 흥미로움을 소개해줄 때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아이들과 책도 읽고 여러얘기들도 나누고 싶습니다.

김소영 (경기여고2): 영어에 흥미 있는 학생들이 영어 학원 대신 영어도서관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이고 재미있게 영어책을 읽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내가 아이들을 도외줄수 있다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 이외의 이야기들도 나누며 즐겁게 봉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소리 내어외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실력이 느는 것을보니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백민규 (중동중3): 아이들과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책에 대한 애정이 눈에 비쳐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나 또한 아이들에게 도움을받았다 생각하니 봉사가 더욱 뜻 깊었습니다. 시나 구청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확충해 적어도 초등학교 때에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어를접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과정에서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서승하 (가락중3): 오랜만에 영어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재미있었고 아이 들이 책을 읽고 생각한 것들을 듣는 것 도 재미있었습니다. 자주 와서 하고 싶 은 봉사처입니다.

임규민 (대명중3): 원래 아이들과 놀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봉사가 재미있었던 건 거 의 처음입니다.

최영준 (단대부중3):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공유할 수 있으니 뭔가 보람차고 기 분이 묘하게 좋습니다.

#### **김주영 (**경기여고 2)

봉사를 시작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을 좋아 했었고, 책 읽어주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저에게 딱 맞는 봉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여름방학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꾸준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으로서도 해냈다는 뿌듯함과 보람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봉사를 가게 되면 아이들의 향상된 실력을 보면 정말 이 봉사 정기적으로 한 것은 진짜 잘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봉사를 통해 아이들은 실력향상을, 저는 자아 성찰과 뿌듯함, 보람참 등의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DAGOM ENGLISH LIBRARY

### Uz zami tus

숙명여고 3학년 김소윤

영자신문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 봉사활동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움영어도서관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참 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봉사라 많은 걱정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영어도 서관 봉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앉아 영어책을 펼칠 때면 아이들은 영어책의 그림을 보고 직접 이야기를 구성해서 제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열린 사고와 창의성에 매번 감탄했습니다. 그림을 집중해서 보고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상상 력을 펼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영어에 대한 지식을 알 려준다고 생각했던 이 봉사에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 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소통하는 방법도 제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건넬까 고 민도 많이 했었지만 이러한 고민도 곧 해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 와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아이들 덕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도서관 봉사에 적응해갈 무렵, 초등학생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긴 영어책을 읽고 해석 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영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어책을 함께 읽고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어퍼즐어 나 알파벳을 이용한 빙고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영어를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 도록 노력했고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해주어 고마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제가 알려준 단 어의 뜻이나 발음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보람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면 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다움영어도서관에 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온 어머니의 감사 편지 1









우리 가족에게 영어도서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새방앗간과 같은 곳입니다. 저와 세 아이들은 매일 오후 도서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이들과 저는 영어야 놀 자, 버디리딩, 맘스북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어와 친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움영어도서관은 일반학원과 달리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하고 내 집처럼 편안합니다. 특히 봉사자 언니오빠들과 함께하는 영어시간을 즐거워합니다. 늘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아이에게 맞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하는 다움도서관 봉사자들의 섬김이 매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받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섬김을 남편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세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남편은 교회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 감히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움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한 남편의 시선이 예전과 조금 다름을 느낍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그 배움을 또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나눠줘 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자기도나중에 영어책 읽어 주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나눔이 또 저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사랑의 나눔을 하여 주신 다움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 작은 편지로 항상 애써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フロセルとくかと



다움영어도서관으로부터 반가운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맘스북클럽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2 살 아이가 있는 저로써는 아이를 데리고도 갈수 있을까? 라 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제약 되는 장소와 시간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너무나 흔쾌히 승낙을 해 주어 아이와 함께 맘스북클럽에 참

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7살, 5살 남자 아이와 3살 여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둘째 출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해서 육아 스트레스가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셋째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 두고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직장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이사를 하고,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과 지인은다 부산에 있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직장 생활에 바쁜 남편과 말 안듣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많은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저로써 전업주부의 역할은 너무나 참기 힘들고 막막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사에 전념하다 보니 지역 사회나 대중 매체와도 단절이 되었으며,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내가 설자리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 때 저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제 마음을열어주는 빛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목요일 오후 2시 맘스북클럽 수업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일 막내 아이에게 얽매여 있는데, 수



업시간에 맞춰 낮잠을 재워 유모차를 영어도서

관에 넣고, 저는 맘스북클럽에 참여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되었습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이자 나에게 성취감과 자



신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잠시지만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자체도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 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죠? 맘스북클럽을 시작하며, 저의 기분이 나아지니 아이

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는듯하더군요~

막스북클럽은 엄마가 영어를 배워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며 함께 영어 공부를 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로써는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제공 된 것만 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영어동화책도 가끔 읽어 주고, 팝송도 부르며, 배운 생활 영어도 가끔 써 먹어 보기도 합니다. 항상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여 영어권 나라에 가서 시원한 커피 한잔들고 자유롭게 관광해 보며 수다쟁이가 되어 보고 싶네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저에게 큰 행복감과 꿈과 희망을 주었네요. 저도 언젠가는 도 서관에서 봉사하는 분들처럼 재능을 찾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 THERE OPORIENDED TOTAL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저의 멋지고 도전적인 경험들을 알려 드리게 되어 정말 기뻐요 무엇보다 먼저 저와 저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끝없는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움교회 후원자 여러분은 진정으로 저희 모두에게 큰 축복이에요.

4학년 학생으로서의 첫 학기는 벌써 마무리 되었고, 저희는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고 있어

요.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배움과 경험이 있었어요. 학생회 임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낙제 없이 지난 학기의 모든 과목을 수료했고 계속 수업 과정을 이

어갈 수 있어 축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정말 저는 축복을 받았어요. 때론 직면한

도전들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

는지 기억해요. 지난 12월 14일에는 학교를 대표해서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랜턴을 만드는

대회에서 참가하도록 선발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1등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이 승리의 일원이 되어 매우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2학기에는 벌써 다섯번째 해외 학위 논문

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

고 어느 수가에 학교를 졸업할테니. 대학생 시절을 즐기고도 있답니다.

저는 찬양과 예배 연습에 참여하고 싶지만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만 제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할 때 훈련시켰던 사람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어서 또한 기뻐요 이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배운 것으로 그들에게 지도하고 나눈 것을 제

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울 것 같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

의 통로가 되는 것이 축복받은 거에요.

저희 가족들은 날마다 저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절대 떠나시지 않을 것을 알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희들을 위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무척 바쁘세요. 가족과함께 하는 최고의 순간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랍니다. 저는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가 받고 있는 모든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해요. 저희

저의 기도제목은 저의 학위 논문의 연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건강, 특별히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고 약해

지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주실 것을 알아요.

가정은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있진 않지만 서로가 있기에 축복을 받았지요.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히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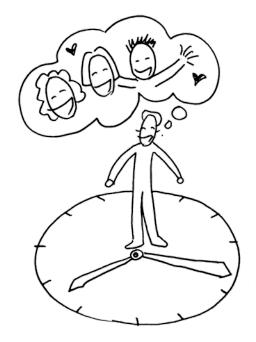
사랑과 관심을 담아 Iry D. Lising 드림

- 편지번역 김미희 -



양승언 목사

### OHJOINE BH



1. 로빈 윌리암스라는 배우의 유작으로도 알려진 "앵그리스트 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헨리는 변호사로, 일상이 분노로 가득 찬, 한 마디로 괴팍한 성격의 소유 자입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던 소시민이었지만, 큰 아들의 불의의 죽음과 둘째 아들에 대한 실망으로 모든 일에 짜증만을 내는 완벽한 "앵그리스트 맨(angriest man)"이 된 것입니다.

2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주치의 대신 들어온 새파란 젊은 의사는 뇌동맥을 진단하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90분밖에 없다는 선고하게 됩니다. 90시간도 아니고 90분밖에 생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믿을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곧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냐?"고 묻게 됩니다.

3. 사람들은 헨리의 질문에 대해 "가족과 함께"라는 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인생의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사람이며, 화를 내며 살아가기엔 우리에게 남은 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 하지만 그의 뜻대로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늘 신경질적이고 틈만 나면 짜증내던 남편의, 아버지의, 친구의 느닷없는 화해의 제스처에 모두가 낯설어만 합니다. 그의 다급한 초대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뜻밖의 모습에 당혹스러워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분노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5. 우리는 흔히 "다음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오늘 당장 모든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음"이라는 기회가 와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익숙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6. 다움교회가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세상을 섬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흔히 교회가 먼저 자립한 다음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하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신의 능력을 잘 분별하여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섬기지 못하면, 상황이나 조건이 변한다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황 이나 조건은 항상 힘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일이든 계획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7. 영화 말미에 주인공 헨리는 여의사에게 "자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가겠죠." 그러자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왜 안해?" 늘 누군가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던, 하지만 정작 본인은 버거운 환경에 치여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8.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엡 5:16). "다음"으로 미루기에는 우리의 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늘 자문할 줄 아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13xxx Es Cent

저희가 섬기는 두리하나학교는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탈북도중 학업시기를 놓쳐버린 아이들에게 학업지도를 하고 안정되게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6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번 급식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7~8명의 봉사자들이 메뉴를 짜고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현장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씻고 다듬고 지지고 볶고 다들 맡은 일을 하느라 참 분주합니다. 때로는 재료가 부족할 때도 있고 깜박하여 뭔가를 빠뜨리고 많은 양의 밥을 하느라 설익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번뜩이는 지혜로 주부의 내공이 합해져 정말부족하지 않게 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낸답니다. 봉사자가 부족할 땐 몸이 불편하셔도 뛰어오시는 분으로 채워지고 또 드러내지 않고 재료를 후원해 주시는 분으로 언제나 넉넉합니다.

요리를 하는 건지 요술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다는 어느 권사님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처음 먹어본 음식에 거부감을 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맛있다고, 저희들이 올 날이 기다려진다고 인사를 하고 볼에 포동포동 살이 오른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엔 무얼 맛있게 만들어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움교회의 멋진 셰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셨으면! 자격은 사랑 가득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주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 Berlin 1/227 Jun

여명학교는 통일 전에 미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도우며, 이들의 교육 경험을 통해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학교입니다. 개교한지 10여년이 됐으며 1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5개의 그룹홈을 갖고 헌신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지란 학생들이 두세 번의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교육받게 된 것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배운 것이 다르고 상처도 크지만, 과거를 극복하고, 책임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여명봉사팀은 오랜 숙련된 가정주방 사역솜씨가 있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능숙함으로 일사분란하게 130인분의 식사를 뚝딱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것으로 도매 시장에서 준비하는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섬김임을 이신 상인분들께서 덤도 많이 주셔서 장보는 것마저도 즐겁습니다.

처음 섬기기 시작한 2년 전 보다 학생들의 체격도 부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며 학생들이 처음엔 고기종류를 잘 안 먹었었는데 이젠 식성들도 좀 변해서 고기도 잘 먹으며 특히 스파게티를 해주어도 인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학생들의 경우엔 외모에 관심이 많아선지 다이어트를 한다며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을 보면 적응을 잘해가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끔하게 비운 식판을 반납하며 감사인사를 건네 오는 학생의 표정은 참 밝습니다. 한달 한번 한끼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 섬김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맘이 치유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학생들 배식 후 봉사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잠깐의 식탁교제는 더할 나위 없이 맛나고 풍성합니다. 특히 남산자락에 학교가 위치해 있기에 꽃피는 시기에는 더욱 설레는 맘으로 섬기러 갑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전환기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명학교는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장차 통일 한국을 내다보며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준비하고 통일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귀한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THEREN GAME

안녕하세요.. 저는 두리하나국제학교 고등반에 재학 중인 유은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북한이 고향이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2세인 학생들 60여명이 함께 공
동체생활을 하며 공부도하고 하나님말씀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아프거나 힘들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한 그릇입니다. 다음교회 어머님들의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해주시는 점심식사가 저희들에게 멀리 계신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공부에 지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주는 것은 봉사자 어머니들의 훈훈한미소와 식판에 풍성하게 담겨지는 어머니들의 정성입니다.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점심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로 섬겨주시지만 다움교회 어머니들의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건 비밀로 알고 계세용~^^ 엄마와 같은 따뜻한 손길로 떠주시는 국은 최고로 맛있고 우리를 향한 미소는 계절을 알리는 봄과 같이 따스합니다.
저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음교회 어머니들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오늘도 작게나마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건강하게 평화통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무럭무럭 잘자라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언 목사



1. 그 동안 우리교회는 이웃사랑 기금을 모아왔습니 다. 이웃사랑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다움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움 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된 것에 감사하여. 다움부 자 녀를 둔 어느 부모님께서 적은 금액이지만 교회에 헌금하기 원했습니다.

2, 그 돈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3년 동안 번 돈이었습니다. 장애가 심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노력으로 자녀가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모아 두셨다가, 다움부 예배가 생겨 감사한 금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받을 수 없다고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자녀를 위해 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미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금하길 원하셨습니다.

3. 너무나 귀한 헌금이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필요한 사역에 사용해도 좋겠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아닌 세상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고 이웃사랑 기금형식으로 교회에 서 계속해서 적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그 동안 모은 기금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기면 좋을지에 대해 전 성도님들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4.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중 한두 가지를 선정해 섬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제안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대단한 능력과 자원이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겨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 후원만으로 섬길 수 있는 분야는 3월부터 섬기고, 물질 외에도 직접적인 섬김이 필요한 사역은 함께 섬길 분들을 모집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우리교회는 개척초기부터 선교적 교회를 지항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번 이웃사랑사역이 이를 위한 또 하나의 귀한 발걸음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편집부

## 一个公里至12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어느 봄날, 좁은 골목의 한 귀퉁이 소박한 쿠키클래스에서는 떠들썩한 기쁜 웃음과 화목한 대화와 헌신적 섬김이 함께 어우러져 고소하고 달달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움부 토요교실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시작을 함께 하며 응원하고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첫 시간의 감동을 나눕니다.



-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목사님의 축도로 시작된 다음 부 토요교실의 첫 시간! 맛난 쿠키와 여러 가지 모양의 쵸콜릿을 만들면서 선생님들과 우리친구들 부모들 모두 행복파티에 초대된 듯 즐겁고 신나고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많은 종류의 재료들과 기구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준비하시고 수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모습은 눈부신 햇살을 가득 안은 하얀 봄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우리 다움부 사랑니무들 하나하나가 새들이 깃드는 아름드리 나무로 멋지게 자라리라 기대하며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 이웃사랑사역의 다움에듀투게더, 토요교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준비된 쿠키클라스 첫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강사님의 꼼꼼하고 완벽한 준비로 모두 행복한 초콜릿과 쿠키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고 소박한 쿠키 수업이었지만 멋진 미래를 꿈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 토요교실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 손을 잡고 토요교실 첫수업 쿠키클라스에 참석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과 쿠키반죽도 즐거워하며 직접 구운 따끈한 쿠키를 맛보며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복기도와 강도사님의 수업시간 내내숙달된 조교(?)의 도움과 선생님들의 사랑의 섬김이 어우러진 화기애애한 쿠키수업이었습니다. 벌써 다음 토요교실 쿠키시간이 기다려지네요∼~!!
- 다움부 첫 토요교실은 쿠키와 초코릿의 달콤함에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의 향기까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한 시식시간을 통해 대예배후 모든 성도를 위한 간식까지 담당할 그날의 희망도 갖게 됩니다.

- 토요교실이 우리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교회 다음부 1주년행사로 특송을 하였을 때 가슴에 뭔지 모르는 것이 전해져서 토요교실 시작하는데 참석을 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데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그리고 천천히 파이틀에 속을 채워놓았습니다. 가끔 선생님 얼굴을 보며 하고 있는 일이 잘되고 있나 확인 하면서. 초코과자까지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투르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가장 맛있고 모양도 예쁜 쿠키와 빵이 만들어지겠지요?
-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한 토요교실,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따라 해 주었고 좋아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는 말씀처럼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일터로 발전하길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 "토요교실"를 통하여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주 작은 싹이지만, 튼튼히 줄기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많은 열매를 맺을 날을 기대합니다. 토요교실를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우리의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토요교실를 가꾸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혜정

3ペペイントントとから





아이들을 만난 지도 어느덧 일 년이 넘어간다.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 솜털 뽀송뽀송한 꼬마 녀석들이더니 그새 훌쩍자라 씩씩한 소년티를 내려 하고 있다.하지만 시크한 표정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장난기 어린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여전히 "나는 귀여운 초등학생이랍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아 볼이라도 한번 꼬집어주고 싶다. 목사님이 꿈이라는 K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말하는 품새가 얼마나 예쁜지 누구에 게도 사랑받을 친구다. 공부에 대한 의욕도 남달라서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며 지난 학기 에는 반 1등을 했다고 한다. 축구선수가 꿈이라는 G는 관심을 한번 가지면 그 분야만큼은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는 친구다. 동물 특히 파충류를 좋아해서 나름 열심히 연구 하는 중이다. 학교공부는 아직 자신 없어 하더니만 얼마 전에는 수학 100점을 받았다고 기분이 한껏 고무되어 있다. 요즘에 와서 발걸음이 뜸한 C는 리더십이 강해 친구들 사이 에서 인기가 많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다. 특히 축구를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도 인터넷을 보며 스스로 익힌 기술로 항상 반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사실 이 모임의 시작은 우리 교회 인근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아들 친구들이 공부는 하고 싶어하는데 공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당신의 공부 방을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을 향한 집사님의 따스한 마음에 나도 작은 마음을 얹어 시작하기는 했지만 쉽지 만은 않았던 것 같다. 아이들 모두 공부는 잘하고 싶어 했 지만 모두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정말 와야 할 필요가 있는 아이는 오기 싫어했고 오더라도 자주 분위기를 망쳤으며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기특하기 짝이 없는 아이도 있었다. 학습에 중점을 두자니 당장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동기유발로 만족하자니 이미 공부에 대한 의지가 선아이에게는 시간당비가 아닌가하는 마음에 미안했다. 더군다나 일 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한 나로서는 학습에 중점을 둘 때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 내 스스로 위안이 되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에 중점을 둘 때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능력부족을 실감하며 늘 고민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결론은 한가지였다. '잊지말자 가랑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옛말처럼 그저 조금씩, 꾸준히계속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일을 일반적인 지역사회봉사로 시작했다면 절대로 오래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그전부터 세심하게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음을 나는 여러번 경험했었다. 때문에 다움 영어도서관이나 이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누군가 한명을 위해 예비 되고 진행되고 있는 일일지도모른다는 기대감은 나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었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손을 놓지는못하게 만들었다. 처음 5.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3명이 오고 있지만, 때때로 아이들이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그 누군가 한명에 대한 기대감은 모든 상황속에서도 내게 자유함을 주고 있다.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후에도 나의 궁금증과 기대감은 계속 될 것이다. 더욱이감사한 것은 지난 초겨울부터 대학생 봉사자의 수고로 아이들이 수학공부를 따로 하면서학교 성적도 많이 항상 되었는데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더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누리길 소망한다.



## 一方を見れる



6월 11일, 안양에 있는 경기여자자립생활관에 다녀왔습니다. 5월에는 대모산 등반을 해서 생활관에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세 번째 만남은 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 모든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연결하지 못했고, 관장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다시 소개해주셨습니다. "ㅇㅇ는 우리 막내고요, ㅇㅇ는 간호조무사 실습을 최초로 마치고 필기만 보면 되고요. ㅇㅇ는 댄스를 잘 하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식조리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가 끓인 된장찌개와, 손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잘하는 친구가 솜씨를 발휘한 부추무침을 곁들여 우리가 준비해간 삼겹살을 함께 구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그야말로 배터지게 잘 먹어서 혹시 고기가 모지라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며 아이들의 노래와 춤 악기 연주를 감상했고,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피아니스트 집사님의 연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선 솜씨 좋은 네일아트 디자이너 친구들에게 우리의 손가락을 맡겼고, 삼삼오오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외로 자기의 이야기를 잘 풀어놓는 아이가 있는 반면 입을 다물고 뻘쭘하게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관장님을 통해 아이들의 엄마는 대부분 없다는 것, 아빠는 그저 끈으로서만 있을 뿐 오히려 도움이 못 된다는 것(전학에 필요한 아버지 도장도 안 찍어주는 아빠)등 구체적이진 않지만 아이들의 상황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 또래의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과 해주고 싶은 얘기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어떠셨는지, 왜 어떻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희망을 가져라 등등의 훈계 내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다니는 학교나 학원, 알바 얘기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먼저 가족 얘기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의 엉켰던 실타래를 푸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경기여자자립생활관은 소년원을 나온 후 결손가정 등 가정환경 때문에 오갈 데 없는 20세 미만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쉼터입니다.)



# 方子623 00 1/25 tho 1...

2013년 7월 자대배치 받은지 얼마 안 된 군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려고 갔다가 감사하게 도 아들 손에서 선공교회 주보를 건네받았습니다. 군인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도 나고 은혜로웠다면서 주보 위에 불렀던 찬양곡을 적어와 보여주는데 아들이 받은 은혜가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살피며 전 그 교회가 몹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월1회 사전결재를 받아 예배를 드렸었고 아들 제대 후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군인교회는 병영에서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안식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 성경공부하며 고민을 내놓을 수 있는 곳, 폭넓게 교우와 교제하고, 음치도 찬양대에 서는 열린 곳, 고된 훈련장에 위문 와주는 곳, 관심사병을 품어주는 곳, 절기행사로 추억을 만들어 주는 곳, 찬양대회에서 일등하면 포상휴가도 주는 곳, 언제든 세례 받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들들에게 참 좋은 군인교회는 전국에 1004개, 그 중 600-700여개 교회는 미자립 교회이며 세상교회가 그렇듯이 교회가 쇠하여 출석하는 간부가 점점 줄어들고 미자립교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선공교회도 3군 사령부 직할 1101 야전 공병단 병영 내에 있는 미자립교회 입니다. 제 이들 다닐때는 60-80 명이 출석하



고 간부가 두 가정 이었으나 전근 가시고, 지금은 30-40명의 병사가 출석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군인교회는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하지만 군특성상 〈기독장교〉 한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분명 부대 안에는 외부 교회 출석하는 기독 간부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가정이 선공교회로 향하고, 또 부대 안에 간부님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20대초반 부모의 품안에서 나와 홀로서야 하고 영육이 강건해져야할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군복무를 잘 감당하도록 힘이 되어주길 또한 중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움교회가 함께 하는 작은 섬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움교회가 이웃사랑사역으로 군인교회를 섬기게 됨을 기뻐하고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재현



논산 훈련소를 다녀온 후 밀알학교에서 복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2개월이 되었습니다. 밀알학교는 장애 이동들을 교육시키는 특수학교입니다. 훈련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밀알학교에서의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 이동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길 때나, 서로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 부딪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쉽게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여 일하는 것이 주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늘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생활은 제 생각과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

로부터 도움만 받던 제가 그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내심을 길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훈련소 때 힘들었던 시간은 까마득히 잊고 동기들끼리 만나 한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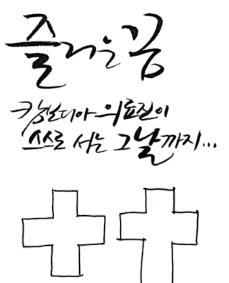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입대 전 밀알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점점 제 생각과 마음가짐이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감사함'이었습니다. 감사함이 생기니까 학교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힘든 일상 속에서 작고소소한 일들로 인해 감사함이 생겨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조금 덜 피운 것도 감사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잘 먹은 것도 감사하고, 양치질을 잘 마친 것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제게 그러한 사명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았고, 일도 수월해졌습니다. 적응도 잘 되고 요령도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근무지에서의 하루를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높아졌고 인내심도 생기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과학교사입니다. 기흉 재발로 공익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밀알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무시간들이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면서 맞닥뜨리게 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훈련이라 민습니다. 저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맞춤형 길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순간 여기서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발전한다는 생각에 기쁨이 생겼고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면서 성실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저를 지키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선주



지난 3월에 나는 프놈펜에 위치한 헤브론 선교병원 간호대학 학사 및 기숙사 준공예 배에 다녀왔다. 예배 참석 후에 2시간쯤 떨 어진 곳에서 하는 이동진료에 동참했고, 이 틀 동안 병원약국에서 한국에서 온 약들을 분류하는 일을 도우면서 선교지를 온 몸으 로 느끼며,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을 뒤 로 한 채 떠나왔다. 섭씨 37도의 무더운 날 씨 가운데에서도 의료진들은 각자의 자리 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벽부터 와서 변 호표를 타서 기다린 밀려오는 환자들을 돌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땀에 젖은 의사 가운을 하루에 3벌씩 갈아 입으면서도 겸손하고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130여년 전에 어두움과 질

병에 갇혀 있던 조선 땅에 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의료선교를 펼치다가 간 많은 선교 사님들을 떠올렸다. 그 때에 그들도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병을 잘 고쳐주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병원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지를 의논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 협력자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고, 의사로 일하다가 50세에 헌신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소돔 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한 신앙의 땅이요(창13:18), 갈렙이 믿음과 개척자 정신 으로 일군 약속의 땅이요(수 14:13), 다윗이 7년6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스라 엘의 왕으로 준비된 땅이다(삼하 2:11). 헤브론 선교병원은 헤브론 정신에 입각해 의료, 선 교, 구제 전반에 걸친 사명을 감당하고자 2007년에 개원을 해서 외래 중심으로 시작을 했 다. 2010년에 병원을 신축하면서 한국에서 온 방문의료팀과 협력해서 수술 및 이동진료를, 2011년에는 의대생 인턴 과정을 시작하며 간호대학 설립준비를 시작했다. 2014년에는 심장 센터를 개설했고, 간호대학을 개설하게 되면서 이번에 건물을 따로 준공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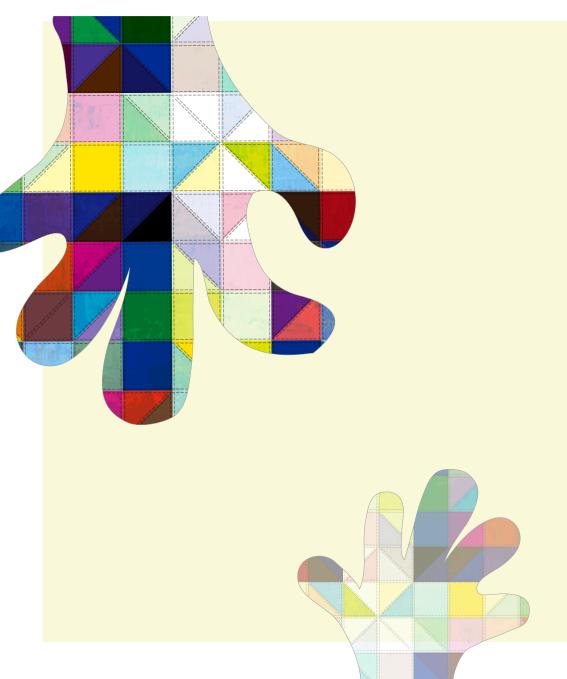
정부에서 간호대를 허가하지 않아서 왕립 간호대학 안에 영어로 강의하는 인터내셔날 간호학과로 시작하였는데 29명의 학생들이 지원해서 월~목요일에는 이곳에서 영어강의 와 실습을 하고, 금,토요일은 왕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 간호대학에서 헌신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여러 나라에서 간호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일 했던 분들인데, 그들이 주말에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르쳐주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고, 일반 간호대학 학생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다. 강의실, 실습실, 기숙사를 한 건물에 넣은 이유는 학생들에게 복음도 함께 전해서 믿음의 리더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왕립대 안에 있는 학과라서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 하지만, 한국에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어서우리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서 불교에 젖어 살던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조금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현재 헤브론 병원에 있는 한인 의료 선교사는 6명이고, 캄보디아 의사는 9명이다. 현지인 직원이 70명이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한인 선교사와 봉사자는 30명 정도이다. 한인 교포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겐 의료비를 받지만, 가난한 현지인들에게는 무료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한인들은 모두 무보수로 봉사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주는 월급을 포함해서 한 달 운영비가 5만불 정도 들어가는데 초교파 연합선교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캄보디아 의료인 리더 양육(간호대, 의과대), 특성화 병원 개설(암센터 등), 현지인에게 병원이양(20년쯤 걸릴 것으로 예상), 라오스와 미얀마로 헤브론 선교병원확대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오늘도 땀을 흘리며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불러 일으켜준 그곳에 꼭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즐거운 꿈을 꾼다.



이웃사랑사역



### O) JAHZAHOTE DHOZUN

		-
	사역 내용	사역시간/장소
소년원 경기여자 자립생활관 후원 및봉사	월 1회 방문해 먹거리 제공 및 함께 시간 보내며 가족같은 정을 나누고 복음을 전함.	월 1회 토요일 점심 경기여자자립생활관
법률 상담	매주 교인들 및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	주일 오후 1시-3시 다움하우스 2호 (주중 전화상담 가능)
다움 에듀 투게더	1) 경제적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일원동 지역의 아동에게 학습코칭/멘토링 2) 학부모세미나	주 1~2회 다움하우스 1호 혹은 3호 시간은 봉사자 및 학생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
	3) 토요교실: 토요일에 장애우들에게 실내활동(쿠키클라스 등) 및 야외 활동(등산 등)으로 섬기는 사역	월 2~4회 토요일 11시-13시(실내활동) 다움하우스 3호 11시-15시(아외활동)
심리 상담	매주 교인 및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갈등과 고충을 해결, 지원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중독예방 및 학습상담제공	주일 오후 1시-7시 사이 다움하우스 2호

〈 재정지원 〉 육군선공교회, 드림위드앙상블,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정, 중동고 장학후원

#### 〈 다움하우스 오시는 길 〉



다음하우스 1호 / 다음영어도서관 - 서울 강남구 개포로 124길 7 (일원동 625-29) 다음하우스 2호 - 서울 일원동 개포로 120길 53 (일원동 633-1) 다음하우스 다음하우스 3호 - 서울 강남구 일원로 5길 13 (일원동 683-12)

#### 〈 다움교회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 2부 11시 / 중동고등학교 대강당

어린이주일학교 11시 / 다움하우스 1호 / 송천홀

청소년주일학교 9시 / 다움하우스 1호 / 송천홀

대학청년부 1시30분 / 다움하우스 3호 / 석정룸

다움부 11시 / 다움하우스 2호 / 세미나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8~29)



#### 다움영어도서관은

지역사회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mark>무료</mark>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네의 편안한 공부방 같은 공간입니다. 다양한 영어도서와 멀티미디어, 다채로운 영어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영어가 힘겨운 친구들, 영어와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영어를 통해 미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 다움영어도서관 운영프로그램

- >영어동화책에 담긴 표현을 배우는 Story Telling
- >유아, 초등 저학년을 위한 **영어야 놀자**
- >영어 말하기를 위한 P.O.P. 방송체험 영어
- >형, 언니들과 일대일로 함께 읽는 Buddy Reading
- >영어의 기초 문법을 배우는 Hello Gramma
- >신문기사를 이용하여 영어표현을 배우는 N.I.E.
- >즐겁게 영어발음을 익히는 Phonics and Chant
-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 **학부모 세미나**
- >다양한 시청각교재와 체험을 통한 생활영어 Mom's Book Club

#### 다움영어도서관 이용방법

도서관은 미취학부터 초중고학생들까지 무료회원제로 운영되며, 간단한 등록절차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월-금 〉 오전 12시 00분~ 저녁 6시 30분 공휴일 휴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개포로 124길 7번지 (옛주소 : 625-29) Tel : 02-445-0714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로 120길 53번지(일원동 633-1) 다움하우스 2호 070-7593-0420 http://www.daoom.org / café.daum.net/daumgrace 양승언 담임목사 / 010-9013-7836 mailto:yenet@daoom.org

